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27호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음력 2월 12일 · 불기 2555년 · 주간)

마음은 항상 목전에 있건만 모를 뿐이다.
잠시도 여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발견해야
만사에 자유를 얻는다.

-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



‘신뢰’부터 얻어라

도심 포교 제대로 하려면… 지역사회 연대 강화 시급

신도시와 뉴타운 등 도심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찰들이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 포교 거점 마련을 위해 전법단을 출범시켰다. 전법단은 병원, 경찰, 군, 대학생, 광주전남, 성남 전법단 등 지역별 · 영역별로 조직돼 불교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전법단은 법당을 벗어났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법 및 포교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활동에 한정돼 도심 및 지역 포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 병원 전법단은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광주전남전법단도 어린이 청소년 법회, 교도소, 군 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병원, 학교, 경찰서에 집중된 전법 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도시민들과는 소통에 한계를 갖는다. 신도시 · 뉴타운 및 도심 특성에 맞는 새로운 포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도시와 뉴타운은 기존 정착민들에게는 고향이 사라진 충격이다. 이주민들에게는 지역에 가족과 친지가 전혀 없는 낯선 땅일 뿐이다.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명상 프로그램 등이 불교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주지 계호)는 전통 사찰이다. 은평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진관사를 찾던 기존 주민들 대신 이주민의 법회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진관사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특화 프로그램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한 신도시 및 뉴타운은 소수의 기존 거주민과 다수의 이주민이 공존한다. 상반된 계층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이 발생하면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찰들이 불교적 혜안을 제시하고 지역 의제를 선도할 때의 포교 효과는 병원, 군부대, 교도소에서 펼치는 전법단 활동을 뛰어 넘는다. 2003년 해인사는 가야산에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과 함께 반대활동에 나서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해인사의 이런 활동은 전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10년 발간한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불교의 외연 확장을 위해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내 각종 위원회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연계시스템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박기범 · 이상언 기자



초코파이 좋아요 도선사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가 매 순례마다 인근 군장병과 전경들에게 보시한 초코파이가 200만개를 넘어섰다. 주식회사 오리온 제과는 3월 10일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를 찾은 순례기도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순례기도회는 이날도 봉은사 인근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600박스를 전달했다. 군대에서는 여전히 인기라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시받은 군인들이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순례회는 봉은사 순례로 순례길 절반을 넘어섰다. 박재완 기자

5대결사 전 총무원장부터 양심고백을

명진 스님, 해제 후 봉은사서 법문



“총무원의 5대결사는 ‘쇼’다. 그래도 5대결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5대결사가 잘되려면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이 자신들을 먼저 반성하고 고백해야 한다.”

봉은사 주지직에서 물러난 후 문경 봉암사에서 안거 중이던 명진 스님(사진)이 3월 5일 봉은사를 다시 찾았다. 이날 법문은 일정에 없었으나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

명진 스님은 “한국 개신교가 부흥을 시작한 것은 1907년 평양대부흥회 이후로,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참회하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불교의 미래도 참회와 고백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5대결사가 잘되려면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이 자신들을 흠부터 고백해야 할 것”이라며 “자승 총무원장부터 MB하수인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국불교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친MB인사 리스트 갖고 있다

김영국 운영위원 “자성 않으면 공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 조계종 지도부 등 스님 380명이 상임고문 등으로 참여했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김영국 운영위원(사진)은 3월 4일 인터넷방송 ‘주권방송’의 ‘우희종 · 최요한의 종교 톺아보기’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캠프에 참여했던 380명 스님은 당선 후 감사장까지 받았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반성 · 고백하지 않으면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380명 스님을 선거캠프 고문 등으로 위촉할 때, 한 명 한 명 만나 승낙을 받아냈다. 고문 등에 위촉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스님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국 운영위원은 “조계종 기획실장이 ‘정부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발언에, 겉으로는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외치고 물밑작업을 한다고 직감해 리스트 존재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불기2555년 봉축표어 연등회는 7일 동국대서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지난 2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76건(132명 응모)의 봉축표어를 심사한 결과 경기도 광명시 황태문 불자가 응모한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을 선정했다”고 3월 8일 발표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불교계의 정부 지원금 거부로 매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던 봉축장엄물 점등법회는 생략될 예정이다.

연등축제는 연등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5월 7일 동국대와 종로에서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을, 8일 조계사앞길(우정국로)에서 불교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을 연다.

조동섭 기자

말로만 종교평화?

종교평화 연수, 신청자 부족으로 ‘폐강’

종교평화에 대한 스님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 교육이 수강자 미달로 폐강돼, 종교평화 문제에 정작 스님들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종교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2011 연수교육’에 2박 3일 과정의 ‘종교 평화와 불교의 역할’ 교육을 마련했다.

그러나 9명의 스님만이 수강을 신청해 폐강이 결정됐다. 특히, 총무원이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를 ‘종교 평화와 불교의 역할’ 강의가 열리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무 담당인 사회국장 스님들 마저 종교평화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수 교육을 기획했던 사회부는 보완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부는 내년 교육기간을 1박 2일로 축소하거나 교육원의 전체 교육 속에 종교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기범 기자

827호 CONTENTS

▶3 기획·도심포교 활성화
종단 차원 로드맵 시급



▶6 티베트 민중봉기 52주년
다람살라 기념식 거행



▶9 인터뷰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 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국민은행 023-501-04-147581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임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시도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거나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혜은
부회장 금당 법성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송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

승려노후복지 시작

제186회 임시종회, 승려복지법 등 6개 종법 제·개정

조계종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승려복지법 · 해외특별교구법이 통과돼 조계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3월 8~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종회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민족문화수호 동참 108배 정진 후 개원했다가,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 후 10일 속개 · 폐회했다.

임시회 동안 중앙종회는 '승려복지법'과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하고 '총무원법' '교육법' '종무원법' '법계법' 등을 개정했다.

승려복지법은 승려복지에 기반이 되는 법으로 종단 소속 만 65세 이상의 승려의 거주 및 의료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은 조계종 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어 승려복지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교구복지회를 둬 이를 관리키로 했다. 재원은 매월 약 1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 외에 총무원과 교구본 · 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기부금 등으로 지원해 국민연금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납 18~59세 조계종 승려는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수행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조계종 스님 중 결계신고를 필한 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으로 차액은 승려복지회가 부담한다. 세부 수급액과 기준은 종령을 통해 마련키로 했으며 수행연금 지급 등 본격적인 시행은 승려복지법 공포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두기로 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사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돼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교육법'도 개정돼 15세 이상인 자도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역의 종단적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역 관할교구에 지역사찰들이 적극 협조토록 한 '종무원법', 총무원의 행정직제를 현실적으로 개편한 '총무원법', 법계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법계법'도 개정됐다.

하지만 조계종 스님이 설립한 법인을 관리하는 법인법 제정안은 논란이 예상돼 선학원 등 각 법인의 의견을 더 수렴키로 해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종회는 원로의원 후보자로 정관 · 혜산 · 인환 스님을 추천하고 원로의원 종하 스님의 대종사 특별전형 심의를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법규위원에 몽산, 종성, 법의, 현봉 스님, 재심호계위원에 보원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효웅 스님, 소청심사위원에 법준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혜오 스님, 인사심의를 위한특별위원에 종호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종헌종법의 입법 미비를 바로잡기 위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 위원장은 법안 스님, 위원은 만당 월공 주경 심우 정범 덕문 지현 범해 진화 상덕 스님이 선출됐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15대 중앙종회 전반기동안 △종헌 개정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한 개정안 마련 △종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중앙종회 운영에 대한 개정안 마련 △승려법, 사찰법, 법인법, 징계법 등 제종법에 대한 연구검토 및 제개정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활동한다.

또, 중앙종회 재무분과위원회에 '흥천사문제정상화를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종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김밥 먹으며 밤늦도록 했는데…

승적 말소자 구제 등 종책질의서 열띤 토론

제186회 임시종회는 결산감사와 종책질의가 여느 때와 달리 충실히 수행됐다. 특히 3월 10일 오전 10시 속개된 회의는 오후 10시경 폐회 때까지 활발한 질의와 종책 개정이 진행됐다. 특히 종책질의에서는 분한신고와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질의가 세 시간 넘게 진행됐다.

열의에 넘친 종책 개정 과정에서 일부 종회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총무부 질의에서는 분한신고 실시 이후 종단 소속 승려들이 대거 승적이 말소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대안 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법안 스님은 "출가자수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2500여 명이 넘는 스님의 승적을 말소한 것은 지나치다. 국가의 주민등록법과 같이 미필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특별분한신고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상시심사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이미 3회에 걸쳐 공고를 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총무원은 이미 법이 정해진 대로 승적말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무부 질의에서는 생수사업과 상조사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종회의원들이 활발히 종책질의를 하고 김밥 등을 먹어가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보인 반면, 집행부는 불성실한 대답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한편 지나친 열의로 종회의원 스님들 간 폭언이 오가는 상황도 두 차례나 벌어졌다.

'승려복지법' 제정안을 논의한 던 중 의사 진행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오심 · 종호 스님은 정회 후 회의장 밖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백운·월운 스님 면직 부당

서울중앙지법, 강원교구종무원장 등 면직 효력 정지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이 총무원장 탄핵안 주도 등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강원교구종무원장을 면직한데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총무원장에게 종무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면직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 판결 선고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월 15일 판결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화쟁 리더 양성한다

조계종 화쟁위 등, 화쟁리더십아카데미 개강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원장 윤여준)과 '화쟁리더십아카데미'를 개강한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는 4월 11일~6월 27일 10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강의와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 모집 대상은 30세 이상이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40만원. leadership@peacefoundation.or.kr (02)6925-0522 조동섭 기자

"좋은 성과로 결실 맺겠다"

10·27 법난, 심의위… 동덕빌딩 9층에 새 보금자리

10 · 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가 관훈동 동덕빌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3월 10일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부지런히 활동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3000여 명 한 목소리 "자정과 쇄신으로" '민족문화수호 자성과 쇄신 결사 직할교구 결의대회'가 3월 11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공동위원장 영담 스님 등 400여 스님들과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의지를 다졌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5대결사 점검⑤ 평화결사

평화결사 '사업'만으로는 '요원'

국민들의 일상의 고통과 삶을 보듬는 해법 제시해야

5대결사 중 평화결사는 종교평화를 통한 우리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종단이 추진하는 평화결사의 주요 내용이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밝힌 평화결사는 ▷종교간 대화 및 교류활동 ▷종교차별 예방 및 대응활동 ▷남과 북,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지원 및 교류활동) ▷사회문제 불교적 대안창출 활동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거나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열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더구나 이웃종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사업'만으로 평화결사 완성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그동안 종단은 종교평화와 관련해서 재가불자들보다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평화결사에는 국민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불교적 평화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웃종교와 대등한 위상과 신뢰를 갖춰야 평화를 말할 수 있다. 종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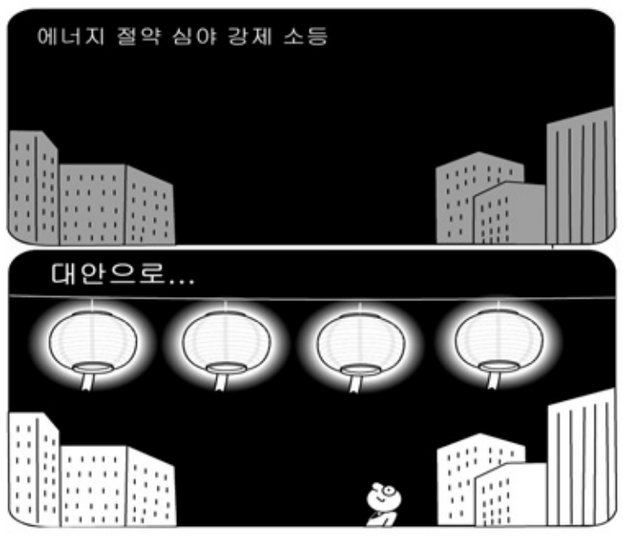
김 위원은 평화 결사를 위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선행돼야하며 도덕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노력과 실천이 불교의 쇄신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질 때 '평화결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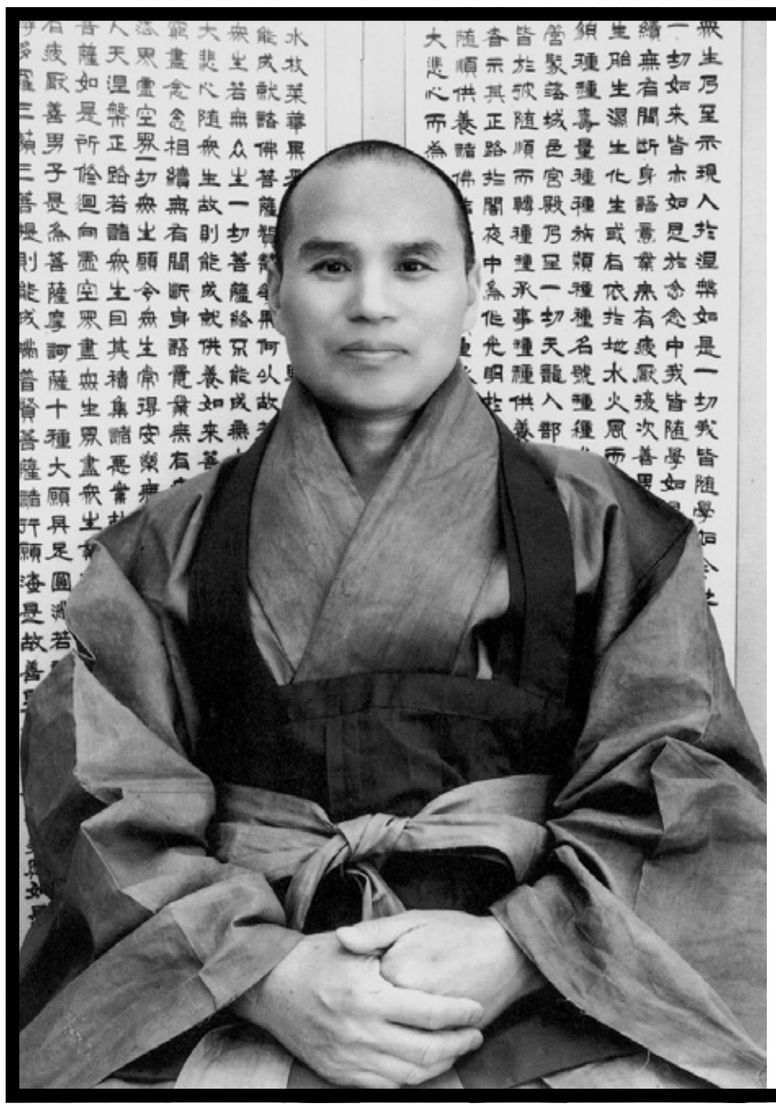
종단은 현재 100일 결사 후 평화결사를 포함한 5대 결사의 세부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평화결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가정, 사찰, 교구본사별 실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가정에서의 평화결사에서는 부부간 존중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찰에서의 평화결사는 평화에 어울리는 사찰환경 조성과 어린이를 위한 평화학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구본사에서의 평화결사로는 종교연대 활동을 위한 평화위원회 조직,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이웃종교와 완대 등이 검토 중이다.

조계종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실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박구원 만평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

2012년은 우리 시대의 부처 퇴옹성철(1912~199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가 시작될 무렵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거쳐 격동의 현대 시기를 살다가신 성철스님의 100년은 20세기 한국 역사와 한국불교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20세기 한국 역사 속 인물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한국의 사상가 성철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21세기 한국 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포럼 "퇴옹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의 100년"을 3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2011년 주제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

【 제1차 포럼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3월 24일(목) 오후 1시~5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
● 주 최 | 성철스님문도회, 불교신문사
● 주 관 | (재)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 진 행 〈1부〉 입재식 1:00~1:50

〈2부〉 학술포럼 2:00~5:00
●주제 :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2:00 기조강연. 불교교육과 한국 사회의 미래 : 성철스님의 지도방식을 중심으로 / 김희옥 동국대 총장
3:00 발제 1. 현대 한국 사회와 바람직한 승가상 / 조성택 고려대 교수
4:00 발제 2.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화 / 성태용 건국대 교수

【 2011년 학술포럼 일정과 주제 】

2011년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

3월 24일(목) |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기조강연 : 불교교육과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제 1 : 현대 한국 사회와 바람직한 승가상
발제 2 :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화

5월 26일(목) | "현대 한국 사회와 퇴옹성철"
기조강연 : 퇴옹성철의 대중지도와 수행자상
발제 1 : 대중언론에 나타난 성철 신드롬
발제 2 : 현대 한국 사회에 투영된 퇴옹의 삶과 사상

9월 22일(목) |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
기조강연 : 근대 불교 100년 속에 퇴옹성철의 위상과 역할
발제 1 :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과 퇴옹성철의 수행
발제 2 : 대립과 갈등의 근대사와 중도법문의 의의

11월 24일(목) | "현대 한국 종교인물로서의 퇴옹성철"
기조강연 : 현대 한국 종교인물로서 퇴옹성철
발제 1 : 근대적 종교지형과 퇴옹성철의 역할
발제 2 : 퇴옹성철의 사회학적 접근

| 성철스님문도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1232호 전화 02) 2198-5100, kosa21@hanmail.net

조계종, 종교용지 분양 통계조차 없어서야

말로만 "도심 포교 하자", 종단 차원 로드맵 시급… 개별 사찰 노력만으로는 안돼



불교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 부처님의 법을 전할 도심 포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 강남에서도 특색 있는 포교를 펼치는 봉은사 지붕이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불법의 힘을 보여주는 듯 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신도시와 도심 포교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은 불교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다. 불교 발전을 위한 젊은층 유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도시 및 지역 사회의 신뢰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사찰들도 자체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행공간이 부족했던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성역화 불사의 일환이었던 삼오모텔 인수를 마치고 3월 7일 인수식을 가졌다. 조계사는 앞으로 삼오모텔을 '도심 포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활용하며 신도들의 수행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하 1층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법당으로 사용해 불교계의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상 2층은 설법전 및 사무공간, 지상 1층은 신행생활 휴게공간과 사찰 음식점으로 활용된다.

은평 뉴타운과 인접한 진관사(주지 계호)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진관사는 2009년 5월 칠성각 해체 복원 중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초월 스님의 태극기 및 독립운동 사료가 발굴됐다. 매년 3월 1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초월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 법회를 열고 '초월 장학금'도 재정해 지역 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 우면동 관문사(주지 영제)도 도심 포교 활성화와 지역 밀착형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아카데미는 종교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차츰 강좌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도 불교생협 솔향기,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 선재무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사찰 내 갤러리를 마련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재활용장터 '보물섬'은 중고 물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민들의 친환경적 삶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보물섬에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도 주민친화적 사찰을 지향하며 아름다운 가게, 수영장, 외국인 노동장 무료 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찰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및 뉴타운 등 도심 포교 활성화에 대한 개별사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단 차원의 의지와 추진력이 미약해 우려를 낳고 있다.

조계종은 2월 22일 용인 서봉사 주지 허운 스님을 신도시 종책 특보로 임명했다. 신도시 종책 특보는 신도시 포교연구와 종교부지 매입 현안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허운 스님은 "신도시 종책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도심 포교 활성화에 대한 종단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더구나 조계종은 포교 연구의 기초가 될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이주한 사찰과 종교용지 분양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스님은 3월 10일 열린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신도시 및 뉴타운 지역 종교용지 분양에 관해 질의했다. 스님은 "신도시 및 뉴타운 도시지역 종교용지 분양 현황과 각 종교별 자료를 요청한다. 분양받은 사찰의 경우 실제로 건립이 이루어졌는지, 이웃 종교와 비교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포교원은 자료 확인 기간이 짧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다음 종회 회기 때 보고하겠다고만 밝혔다.

현근 스님도 "교세가 자꾸 위축되고 있다. 종단이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포교원은 유관부서와 협의해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토지 처분금 20%를 종단에 납부해 도심 사찰 부지 매입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 처분금은 당초 교구에 관계없이 총무원이 취합해 교구 지원과 신도시 포교거점 구축 등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교구본사들의 반발로 교구별로 취합·활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2010년 1월에 발간한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판교, 광교, 동탄, 양주, 파주, 김포 한강 신도시의 종교용지에 입주한 사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32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불교가 우세한 지역은 9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사찰이 도시화를 추진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종단과 해당 지역 교구의 신도시 포교 전략 부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또 경기도 내 불교세가 30% 미만인 8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뉴타운 개발 지역이라고 밝혀 신도시·뉴타운 지역에 포교가 절실함을 나타냈다.

2005년 불교신문 조사에 따르면 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진 58곳의 종교용지 중 기독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35곳의 종교용지를 획득했고, 가톨릭도 17%인 10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불교계는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대구 칠곡3지구'에 만든 포교당이 유일했다.

또한 재정 마련을 위한 대출 제도에서도 불교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웃 종교는 십일조 등 고정적인 수입이 뚜렷하고 교단과 연관된 신용협동조합이 활발해 대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불교계는 고정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이 쉽지 않다. 더구나 스님들이 사찰 건립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현실적으로 종교부지 입찰에는 많은 비용과 정보가 필요하다. 총무원 만의 힘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불교계 전체가 도심포교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박기범기자

특별기고

젊은 부부·퇴직자 포교 집중 필요

신혼부부, 퇴직자 탈 서울화 가속화
명상 통한 포교로 새롭게 포용해야

포교는 지역인구의 특성에 맞도록 이루어질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인구의 특성이 분석되고 그에 맞는 포교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퇴직자를 중심으로 신도시로의 '탈(脫)서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낮은 신도시로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와 주택매매차익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퇴직자들이 이주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포교 콘텐츠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자녀들에 대한 포교 방안을 떼어놓고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의 종교관은 평생 유지될 수도 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사찰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불교에 대해 특별히 실망하지 않는 한 불자로서 일생을 살아갈 여지가 많다. 그렇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영·유아기에 사찰이 친밀하고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당에서의 근엄함과 엄숙함은 자유분방한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무섭고 다가서기 어려운 장소로 각인되기 쉽다. 어린이집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법당을 꾸미고, 또한 그 법당을 법회시간 이후에도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부모와 함께 사찰을 찾은 어린 자녀들에게 한결 사찰과 불교에 대한 친밀감과 친숙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자놀이방, 전통문화놀이방, 불교음식 만들기 놀이방, 찬불가 부르기 놀이방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가진 놀이방 등의 운영도 영·유아 시절부터 불교에 대한 거부감 내지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신혼부부 자신을 위한 포교 콘텐츠로는 무엇이 있을까?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신혼부부들은 사회 초년생 또는 임산부들인 경우가 많은데 사회 초년생들은 직장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그리고 임산부들은 태교를 위하여 명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명상의 여러 효과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있어 매우 뛰어난 직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만일 신도시 포교당에서 불교문화콘텐츠인 명상 프로그램을 대중적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사회 초년생과 임산부 등의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자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삶을 회고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포교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된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나 하는 깊은 허무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인데 언급한 명상 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퇴직자 중에는 남은 삶을 이웃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포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든 퇴직자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아니다. 선무도와 태극권, 대체의학 프로그램, 산사 순례 등은 건강에 관심 있는 퇴직자들의 발길을 사찰이나 포교당으로 이끌 수 있는 포교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조기룡(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사찰 경내지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자연공원법과 농업협동조합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은 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기범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쀼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활인선원 정진대중 하안거·동안거 재가자 모집

제5차 참선대중화선회

삼매체험 선 수련회 · 단기출가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가능
면역성, 노화방,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오후 3시 입재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 4월 23일(30일간)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4월 8일 ~ 4월 12일(5일간)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 5월 7일(30일간)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안성맞춤 활 인 선 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

일 주 문



종지협 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9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공동대표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도법 스님, 인드라망 월례법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19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에서 '〈화엄경〉 세주묘엄품과 마을공동체' 월례법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평화황금대상 수상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가 2월 23일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수상으로부터 아띠샤 디빵가라 평화황금대상을 수상했다.



현장 스님 사회복지학 박사

대구 임휴사 주지 현장 스님은 서울한성대에서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상진 동국대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는 3월 8일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이경섭 대한전립선학회 회장

이경섭 동국대 경주병원 비뇨기과 병원장은 3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전립선학회 총회에서 2년 임기로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인사〉 천태종 사회부장 안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3월 7일 인사를 단행, 총무원 사회부장에 안산 스님(56)을 임명했다.

안산 스님은 1981년 구인사 입산 이래 진주 월경사 주지, 천태종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서울 삼룡사 주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혜용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0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에 혜용 스님을 임명했다.

혜용 스님은 1991년 성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함평 용천사 주지,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다.

만해대상 수상자

제15회 만해대상 수상자에 아누라다 코이랄라 마이티 네팔 재단이사장 등 4명이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2011 만해대상 수상자로 △평화부문의 코이랄라 이사장을 비롯해 △실천부문 스리랑카 고고학자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치 박사 △문학부문 소설가 모옌(莫言), 이근배 시인 등 4명을 선정했다.

정리= 이나은 기자

성매매로부터 네팔 여성 인권 지켜와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아누라다 코이랄라 (마이티네팔 재단 대표 · 62)

아누라다 코이랄라(Anuradha Koirala)는 네팔 카트만두에 소재한 마이티네팔(Maiti Nepal) 재단이사장이다. 전직 영어교사인 그는 성매매로 인권을 착취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투쟁을 벌이는 인권운동가다.

'어머니의 집'이라는 뜻의 인권단체인 마이티네팔을 이끌며 1993년부터 지금까지 1만 2000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를 구한 코이랄라는 단순히 소녀들을 구조하는 것을 넘어 의료와 교육, 애정을 제공하는 안식처를 만들었다.

코이랄라는 방 2개로 단체운영을 시작, 현재 29개 국내 지부와 전 세계의 후원 네트워크를 갖춘 조직으로 이끌고 있다.

코이랄라가 폭력과 인신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사에서 비롯됐다. 남편의 구타로 세 번이나 유산을 했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몰랐다. 폭력 희생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재활을 돕는 것이 마이티네팔의 출발이었던 것.

이후 마이티네팔의 사업은 인도에 성노예로 팔려가는 어린 네팔 소녀들을 구조하는 것으로 확장됐고, 마이티네팔은 성매매 업소를 급습하거나 국경을 순찰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네팔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쉼터와 재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코이랄라는 인도로 성노예추방미션 여행을 할 때는 보디가드들의 호위를 받지 않고서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적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이랄라의 헌신적 활동을 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활동을 돕고 있다. 봉사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구조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코이랄라는 공로를 인정받아 △네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2004 · 2005) △세계평화종교연합 평화대사(2007) △스페인소피아 여왕상 은메달(2008) △UN 네팔 여성위원회 감사패 △CNN 올해의 영웅(2010)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고대 인도언어 정통한 세계적 석학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치 (스리랑카 학자 · 72)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치(Sirisenda Banda Hettiaratch) 박사는 스리랑카의 저명한 역사 · 고고학 · 불교학자이다. 그는 불교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소양을 길러오면서도 영국의 현대학문 방법에 의한 동서 신구학문의 내공을 쌓았다.

헤티아랏치 박사는 스리랑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1970년대 초, 런던대의 동양학 및 아프리카 학부에서 세계적인 동양학자인 석학 케스파리스(J.G. de Casparis) 지도교수 밑에서 고도의 학문적 수업을 5년간 쌓아, '고대스리랑카의 사회와 문화의 역사'라는 연구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귀국후에는 대학교수로서 평생 학문 연구와 강의 그리고 고고학 발굴로 일생을 보냈다.

헤티아랏치 박사는 그동안 〈고대스리랑카의 사회와 문화의 역사〉를 비롯해 20여 권의 중요한 저술을 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스리랑카 최고 고고학자로서 위치를 다졌다.

특히 그는 5세기 중국의 구법승 법현이 쓴 〈불국기(佛國記)〉에도 등장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무외산사(無畏山寺)인 아바야기리 비하라(Abhayagiri Vihara)에 관해 연구하기도 했으며 이 방면에서는 제1인자로 정평이 나있다.

불교사와 고고학 연구분야에서 헤티아랏치 박사가 이룩한 성과 중 특히 주목할 분야는 그가 유명한 아소카 명문에 새겨진 브라흐미 문자를 해독한다는 것이다.

아소카대왕은 고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으로 통일전쟁 후 여러 곳에 석주를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는 칙령을 새겼다. 이 아소카 칙령이 새겨진 석주와 암각 등에 발굴된 것은 1세기가 넘는다. 그러나 이 칙령의 문자인 브라흐미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 프라크리티어 외에 고대 인도 언어에 정통한 헤티아랏치 박사의 학문 활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아시아 문학 위상 알리는데 큰 역할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자



모옌(중국 소설가 · 55)

모옌(莫言)은 현대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 됐다.

단편소설 〈봄밤에 내리는 소나기〉로 등단한 그는 1987년 대표적인 장편소설 〈홍까오량 가족(紅高粱家族)〉을 발표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작품의 일부를 장예모 감독이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제작해 198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하면서 모옌의 작품이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번역 · 출간되는 계기가 됐다. 모옌은 이후 장편소설 〈열세 걸음(十三步)〉 〈술의 나라(酒國)〉 〈풀을 먹는 가족(食草家族)〉 등을 연달아 발표했고, 〈환락〉을 비롯한 주목할만한 중단편 소설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옌 문학의 매력은 중국현대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적나라한 실상을 대륙적인 입심으로 장엄하게 풀어가는 통렬한 재미에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중국적인 허풍과 과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기상천외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친다.

모옌의 장기(長技)가 돋보이는 〈인생은 고달파〉는 여러모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악덕지주로 몰려 총살당한 서문촌의 지주 서문뇨가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 사람으로 거듭 환생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 소설은 〈삼국연의〉나 〈수호전〉과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장회체(章回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0년이라는 장대한 역사를 다면적 시각으로 폭넓게 그리기 위해 '윤회'라는 불교적 상상력을 끌어들인 점도 치밀하게 계산된 서사전략이라 할 수 있다.

윤회의 순환체계에 착안해, 중국 현대사 50년의 소용돌이를 헤쳐온 인간들의 고투(苦鬪)를 장쾌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작가적 역량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모옌은 최근 들어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문학포럼' '한중 문학인대회' '세계작가 문학포럼' 등에 계속 초청돼 한국작가들과의 연대감정도 열정적으로 나누어 갖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한파 작가이기도 하다.

詩歷 50년, 한국시 정체성 살려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자



이근배(시인 · 71)

이근배는 한국시의 정체성인 시조와 자유시의 큰 물결을 하나로 잇는 독보적 시인이다.

이근배 시인은 1961년 경향, 서울, 조선, 신춘문예에 시조로 당선한 이후 △1962년 동아(시조) △1962년 조선(동시) △1963년 제2회 문공부 신인예술상 시부 수석상, 시조부 수석상 △1964년 한국일보 시 당선 △1964년 제3회 문공부신인예술상 문학부 특상(시)을 받으며 올해 시력 50년을 맞는 동안 시조와 시쓰기에 쉼 없이 달려왔다.

이근배 시인은 등단과 함께 '신춘시' 동인으로 60년대 자유시단의 중심으로 나서는 한편 한국시조시인협회 창립이사(64),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위원장(73)으로 선두에서 현대시조의 중흥을 이끌어 시조인구의 확장과 시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근배 시인은 또 엄혹한 군사통치하의 문예지 기근시대에 월간 〈한국문학〉을 발행, 주간을 하며 1970~80년대 한국 문학의 넓은 땅을 개간했으며 1984년에는 신문사상 최초로 장편서사시 〈한강〉을 1년간 한국일보에 연재, 노산 이후의 대문장이라는 평을 얻기도 했다.

그는 시조로 가람, 노산, 조운의 맥을 잇고 자유시로는 만해, 지용, 미당의 시정신을 담아내며 민족적 화두를 우리네 고유의 가락으로 엮어냈다. 이러한 그의 활달한 시 세계는 한국시조시인협회장(1994)과 한국시인협회장(2002)을 맡아 시조와 자유시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입증하는 큰 몫을 해낼 수 있었다.

이근배 시인은 신문학 이후 문단사의 큰 스승을 모시는 일에도 앞장서서 지용회회장을 역임했으며 오늘까지도 공초숭모회회장, 사단법인 심훈 상록수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만해시인학교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 중앙시조대상, 가람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육당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유심작품상, 시와시학작품상, 고산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문인으로서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예술원회원(2008)에 선임됐다.

제13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 13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불교에서 신(信)의 문제	제한 없음	-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 수 마 감 – 2011년 5월 13일(금)
당선작 발표 – 2011년 6월 17일(금) 예정
당선 논문발표회 – 2011년 11월 4일(금)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 (500만원), 선정 7편 (편당25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정수현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jingakrcsr@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핸드폰 010-9005-0751

대 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

10 · 27법난 피해자 피해신청서 접수 공고 및 위원회 사무실 이전안내

공고 제 2011-2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3.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피해신청 접수기간
2009. 3. 16 ~ 2011. 12. 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나.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10 · 27법난의 정의
"10 · 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함.

3. 신청인의 자격
가.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4. 신청서 접수처
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1) 직접(방문)제출 : 일과 시간내 (09:00~18:00)
2) 우편제출 : 신청 접수기간내 도달
나. 주소 : 10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위원회 사무실을 전쟁기념관에서 조계사 인근 동덕빌딩으로 이전 ('11.3.3)함에 따라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가 변경됨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1부
나. 피해경위서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 · 면 · 동장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 ·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 산정

7. 심의 · 결정 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 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내「10 • 27법난자료실」또는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10 • 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 • 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전화 02-748-5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사무실 이전안내

법난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무실 이전일 : **2011. 3. 3.**
◈ 이전 장소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조계사 인근〉**
☎ 대표전화 : **(02) 748-5555**
◈ 대중교통이용
지 하 철 •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조계사 방향 100m / 도보 2분)
•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방향 500m / 도보 10분)
시내버스 (안국역 하차-지하철3호선) • 지선버스(Ⓖ) : 1020, 8000, 7025
• 간선버스(Ⓑ) : 109, 151, 162, 171, 172, 606, 704, 708

※10 · 27 법난의 극복과 승화를 위해서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식한 아버지가, 대화를 거는 아버지로 '변했다'

인경 스님의 명상상담연구원 부산지부





"책상에 손바닥을 대면 차갑지만 손을 떼는 즉시 차가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입니까?"

일순간 방안 가득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저 손바닥을 책상에 대보라고 해서 살며시 올렸다 뗐을 뿐이고, 겨울철에 책상이 차가운 것은 당연지사. 나 역시 그냥 나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를 찾아야 할까. 수십 년간 절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문 깨나 들었다는 법력 높은 불자들도 스님의 물음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명상수행을 통해 '참나'를 찾아가는 곳, 부산 수영동에 자리한 명상상담연구원 부산지부이다.

명상상담연구원은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치료학과 교수인 인경 스님(한국명상치료학회장)이 세운 기관으로 서울 장충동에 본원을 두고 있다.

명상상담연구원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일요일마다 인경 스님의 '마음바꾸기: 고집멸도(DANM) 명상' 강의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대중으로 북적인다. 부산과 전라도, 경남 창원 등 연구원의 3개 지부 중 인경 스님이 직접 출강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지부에서는 제1기 교육생 12명이 총 8개월 과정 중 5개월 차에 접어들어, 다음 달이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마음바꾸기: 명상클리닉(ALPA)' 상급자 코스로 진급한다.

3월 5일은 '마음바꾸기: 고집멸도(DANM)명상' 4개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간화선법'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3명씩 짝을 이룬 A·B·C·D 4개조가 스님의 질문을 듣고, '참나'를 찾고자 열띤 조별 토론을 벌였다.

A조는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주체와 차갑단 느낌을 알아차린 주체가 나임을 아는데,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느낀 것. 그 알아차린 주체가 내가 아닐까. 염지관을 행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나"라고 대답했다.

모두들 제법 그럴듯한 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은 죽비를 한번 '탁' 하고 쳤다. 2% 부족하단 뜻이다.

B조는 "차갑다고 느낀 것도 내가 아니고, 나 자신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답했다.

인경 스님은 "분명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나는 없다고 답했으니 즉답을 피하고 있어서 틀렸다"고 지적했다.

> 과연 '참 나'를 찾을 수 있을까?
>
> 명상상담이 가장 현실적 답 제시

C조는 "본래 나는 존재하지 않는 무아인데 차가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D조는 "차가움과 마찬가지로 내가 표출되는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존재감 안에 비어있는 흰 도화지에 인연에 따라 색칠되는 것이 다를 뿐"이라며 "'공'의 상태, 비어있음이 본래 나"라고 대답했다.

이에 인경 스님은 "그럼 차가움이 없을 때, 차가움을 지켜보지 않을 때는 무엇이 나인가?"고 되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이 다시 시작됐다. 과연 이들은 '참나' '진정한 나'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

8주간의 '명상수행 과정'은 인경 스님이 직접 연구·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전통적인 불교식 수행인 명상에, 서양의 현대 학문 중 하나인 심리학을 접목해 고안해냈다.

스님은 "불교는 아주 과학적인 만큼 현대의 학문과도 일맥상통 한다"며 "심리학자는 명상에 관심이 있지만 불교의 교리에 약하고, 불자들은 마찬가지로 현대심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결합한 명상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경 스님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명상을 통한 심리치료인 '마음바꾸기 명상치료클리닉'과 깨달음과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고집멸도 사성제를 기초로 한 '고집멸도 명상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마음바꾸기 명상치료클리닉'은 '호흡과 염지관(念止觀)명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리다(Lida) 명상', 기억 속 이미지를 관찰하는 '영상유식관법',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고집멸도 명상상담프로그램'은 주로 불교적 상담을 통해 심리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다.

> 불교명상+현대 심리학=명상상담
>
> 고집멸도 사성제 기초로 심리치료

교육 참가자 홍동효 씨(49·공무원)는 왕복 3시간 거리를 4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동안 몸에 익은 업식으로 포기하려던 순간도 많았다고.

홍 씨는 "명상수행을 시작한 후, 삶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더라"며 "이제는 고지식한 아버지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거는 아버지가 됐다"고 말했다.

평생 도반인 최병일(51·자영업), 류숙희(53·주부) 부부는 원찰의 주지스님이 추천해 명상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남편 최 씨는 "나는 불자가 아닌 가톨릭신자라서 선뜻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명상수행은 종교를 떠나 자기 생각을 없애는 가장 좋았던 방편"이라고 밝혔다.

아내 류 씨는 "부부간의 의견차로 다툼이 잦았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다 법담을 나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상상담연구원 부산지부는 4월 2일 오후 1시 부산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식 명상수행의 최대 목적은 다름 아닌 번뇌 소멸과 해탈이다. 인경 스님의 명상상담프로그램이야말로 급변하는 우리 시대에서 어쩌면 뜬구름 잡는 말처럼 느껴질 초월지향적인 불교를 현실로 이끌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아닐까. (051)742-2966

박지원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 석혜오, 석능현, 석윤오, 박선혜화)

원로회회장 석홍섭 대종사 **원로회부회장** 석무공 대종사 석만월 대종사

승정원장 석원정 대종사 종회의장 석법일 대종사 기획원장 석법상 총무원장직무대행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감찰원장 석다우 대종사 감찰국장 석법진 종 사 호법원장 석원명 대종사 호법부장 석대연 종 사

포교원장 석혜운 대종사 포교부장 석혜통 사정원장 석현종 대종사 문화원장 석지명 대종사 문화부장 석혜주 종 사

범패교육원장 석무겸 대종사 범패교육부원장 석월오 석운오 석대명 교육부1국장 석대덕 교육부2국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부산종무원 석정은 김해종무원 석청해 거제종무원 석덕운 대구종무원 석청명

창원종무원 석범일 진주종무원 석덕오 전북종무원 석설산 마산종무원 석법경

〈비 구 니 원〉

비구니 원로회장 석효각 비구니원장 석청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 입종안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 가톨릭과 손잡아

가톨릭 바보의 나눔, 조계종 복지재단에 3000만원 지원 협약

이웃종교간 대립과 폄하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 불교계 복지법인과 가톨릭 재단법인이 손을 잡고 소외이웃 돕기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3월 2일 명동성당에 위치한 바보의 나눔(이사장 염수정 주교)을 방문하고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실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바보의 나눔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이하 의지나눔)' 사업을 눈여겨보다 2011년 처음으로 외부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의지나눔 사업에 동참하고자 의사를 전달했다.

바보의 나눔은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업비 지원 외에도 템플스테이로 진행되는 의지나눔 캠프 참여, 전문 직종 봉사자와의 만남 참여 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복지재단의 자비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바보의 나눔 재단 관계자는 "타 종교재단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조계종 복지재단의 의지나눔이 우수한 사업이라 생각했다"며 "종교를 초월해 봉사자와 대상자를 참여시켜 우리사회의 미래를 개최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업이야 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복지 컨텐츠의 모습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이유를 전했다.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사업은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포기하고 정신적, 물질적, 빈곤의 악순환에 순응 하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새로운 나눔 사업으로 2007년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의지나눔 사업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사업 사례집 발간, 산하 복지관의 사업 참여 독려 및 직업군 연계, 노하우 공유 등 한명이라도 더 많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며 재능 나눔의 시초로서 모든 재능나눔 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경험만큼 소중한 교육은 없다. 인생의 목표 설정은 어릴적 직·간접적인 경험에 크게 좌우되지만, 이웃들과 단절된 현대 사회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재단은 의지나눔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종교간 대립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라는 고통된 가치를 위한 나눔사업에 서로 다른 종교가 상호존중하고 합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3월의 환우

김태호(남·43세)_간경화



B형 간염보균자로 4년 전부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김태호 씨는 올해 초 황달과 복수 증상이 생기면서 급속하게 간경화가 진행돼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간이식만이 최선이라며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했지만 너무 응급한 상황이라 가족들은 생체 간이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에서 간성혼수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중·고등학생인 두 아들이 나섰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아 기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이라는 이식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김 씨의 부인은 하루하루가 조급한 마음뿐이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생명나눔) (02)734-8050

"진정한 평화 원하면 꾸짖어야"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주장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포용함과 동시에 매섭게 꾸짖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면모가 있어야 한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이 3월 10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5대종교간 대화'에서 불교계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외부 압력에 대해 절복하겠다는 보살의 행원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복과 섭수는 홍법의 이도로, 섭수는 받아들이고 포용하여 인도함을 의미하며 절복은 꾸짖어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의미한다.

송 위원장은 "불교는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대립에 대해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것이 곧 파사현정,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내면적 평화를 방해하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과 대상에 대하여 절복하겠다는 보살의 행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불교적 평화관이 정립된다"며 현재 조계종이 펼치고 있는 자정과 쇄신의 결사로 불교가 다시금 사회화합과 통합의 원동력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불교가 국교였던 신라에서는 국가와 개인, 개인과 국가는 하나였지만 고려 시대 무인들의 비호에 의해 불교의 본질을 잃어버렸 다"며 "이런 불교의 모습은 조선조의 억불에 이어져 그 이후 민족적 결단에 불교계가 앞장서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00자 뉴스

제2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 입학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유석천)은 3월 10일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제2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 등 40여 명이 입학한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은 지난해 개설됐으며 프로그램 1년(2학기)으로 구성된다. 조동섭 기자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실시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계성, 조계종 포교부장)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태석)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협약식을 진행했다. 국제청소년포상제는 만 14~25세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봉사활동을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다. (02)2011-1909 이상언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구제역 살처분에 대한 실천방향 논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구제역과 살처분에 재가여성불자들의 실천방향을 논의한다. 이상언 기자

김일엽 문화재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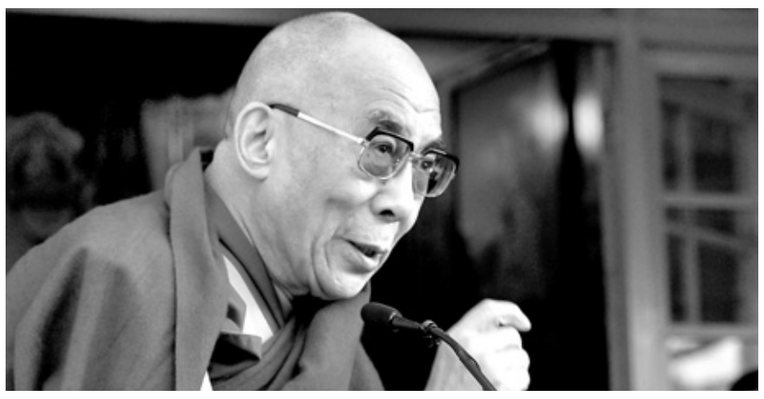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여승으로 일컬어지는 일엽(1898~1971) 스님의 유지를 잇는 '김일엽 문화재단'이 출범했다. 일엽 스님 문도회의 월송 스님을 중심으로 출범한 재단은 예산 수덕사 인근에 김일엽문학관을 짓는다. (041)337-6011 이상언 기자

제1회 수도권병원 불교자원봉사자대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회 수도권병원 불교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도권병원 14곳의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나은 기자

정신적 지도자로 남겠다

달라이라마, 티베트 민중봉기 제52주년 기념식



달라이라마가 "권력이양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망명정부 지도자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3월 10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사원 쫄라캉(Tsuglakhang)에서 열린 티베트 민중봉기 52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티베트의 정당한 명분을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티베트 망명 정부는 3월 20일 선거를 통해 새 지도자 선출로 중국정부가 권력 이양과정에 관여하는 상황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달라이라마는 현재 중국정부의 통치하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현실과 중국정부의 티베트 환경 파괴 만행, 그리고 현재 북아프리카에 불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폭풍에 대해 거론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북아프리카에서 펼쳐지는 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나는 인권의 힘을 믿는다. 그 가치는 소중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인류 보편의 정체성이다. 자유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 가연숙 객원기자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활동으로 새생명 찾아

군포매화복지관 자원봉사자 이 인 숙 씨



"봉사활동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군포시 매화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인숙(57 · 사진)씨는 한마음 선원 봉사단 '주인공팀'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 씨는 몇해 전 한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인숙 씨는 '내 마음의 주인공은 나'라는 한마음 선원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술 대신 자신을 믿는 길을 택했다. 놀랍게도 5~6년 후 재검진 결과 심장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이 씨는 믿는다.

이 일을 겪은 뒤 이인숙 씨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부터 한다.

"봉사할 때 인사를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감사하고, 한 끼 식사에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씨는 봉사활동을 '행'으로 이해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익혔다면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숙씨는 불자들이 꼭 불교계 기관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곳에서 마음 편히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덜 갖고, 남을 위해 베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 아귀다툼이 일어요. 봉사활동을 하면 남을 위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인숙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늦은 나이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올해부터 3월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한다. 사회복지학과는 아니지만 대학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진 것이다.

"봉사를 통해 생명도 다시 얻고,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박기범 기자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教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教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 불교(佛教)란 : 근본불교(根本佛教)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教)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
특별과목	• 공사상(空思想) = 空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教)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教)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심 인 불 교 대 학 무 애 정 사

문의 :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법운 합장)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1년 4월 7일 (목요일) 오후3시** (목탁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래,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사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성철, 문화아이콘으로 만난다

2011~2013년 매년 4회씩 12회 걸쳐 학술포럼 진행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포럼이 진행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2012년 성철 스님(1912~1993) 탄신 100주년을 맞아 '퇴옹 성철의 100년과 한국불교미래의 100년' 을 주제로 2011~2013년 동안 매년 4회에 걸쳐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학술포럼은 ▲2011년 '퇴옹 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방향' 를 주제로 20세기 역사적 인물로서 성철 스님의 모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논의한다.

△첫 포럼은 3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의 기조강연 '불교교육과 한국 사회의 미래' 을 시작으로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현대 한국사회와 바람직한 승가상' 을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자주화' 를 발표한다.

△5월 26일에는 '현대 한국 사회와 퇴옹 성철' 을 주제로 기조발제 '퇴옹 성철의 대중지도와 수행자상' 이 진행된다. 발제는 '대중언론에 나타난 성철 신드롬' '현대 한국 사회에 투영된 퇴옹의 삶과 사상' 이 발표된다.

△9월 22일에는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 성철' 을 주제로 '근대불교 100년 속에 퇴옹성철의 위상화 역할' 을 기조발표하고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과 퇴옹성철의 수행' '대립과 갈등의 근대사와 중도법문의 의의' 에 대한 토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24일에는 '현대 한국종교 인물로서의 퇴옹 성철' 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진행되며 '근대적 종교지형과 퇴옹 성철의 역할' '퇴옹 성철의 사회학적 접근' 이 주제발표된다.

▲2012년 '퇴옹 성철과 조계종' 을 주제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頓悟頓修)에 대한 논의, 불교사상, 종단에 대한 입장 연구가 시작된다.

△3월 22일 '돈점 논쟁과 깨달음' 포럼 △5월 24일 '돈점 논쟁의 역사적 맥락과 법맥론' △9월 27일 '퇴옹성철의 수증론' 을 주제로 '돈오돈수론과 구경각론' '퇴옹성철의 간화선 수행론' 이 발표된다. △



11월 22일에는 '퇴옹 성철의 종단 인식' 을 주제로 봉암사 결사와 수행종풍의 확립, 퇴옹 성철의 종단사적 접근 · 전통인식 문제 등이 논의된다.

▲2013년에는 '퇴옹 성철과 한국불교의 미래' 를 주제로 현대 사상과 문화 측면에서 불교의 미래를 논의하게 된다.

△3월 28일 '퇴옹 성철과 불교의 미래' 를 주제로 '봉암사 결사정신과 승가의 경제' '조계종 종풍과 간화선 수행' '한국 간화선과 수행 문화의 미래 비전' 이 발표된다. △5월 23일에는 '탈현대 철학으로 본 중도사상' '생태적 관점에서 본 퇴옹 성철의 자연관' '뇌과학과 불교' '퇴옹 성철의 수행론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성철 스님의 현대 사상을 조명한다.

△9월 26일에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서 볼 수 있는 미학' '문화예술로 형상화 된 퇴옹 성철의 이미지' '문화 코드로 만드는 성철 스님' 이 논의되고 △11월 28일 '퇴옹 성철의 100년과 한국의 100년' 으로 각 포럼의 키워드를 주제로 대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해인사 백련암)은 "성철 스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3년간 분기별로 진행하게 됐다"며 "단순한 내용 정리나 논문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발제자의 주장과 이슈가 드러나도록 자유로운 글쓰기는 물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택 스님은 "이번 포럼이 불교가 친숙한 문화 아이콘으로 재발견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도대현 박사, '성철선사상' 출간

現미국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인 도대현 부산대 철학 박사가 성철 스님에 대한 종합연구서 〈성철선사상〉을 최초로 펴내 눈길을 끈다. 책은 도대현 박사의 박사 논문 '성철선사상연구' 을 다듬은 것으로 성철 스님의 행적, 저술, 저술에 인용한 경론과 어론 분석,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에 대한 학계의 비판 · 긍정적인 논의, 성철 스님의 중도 견성관, 중도 논증 등을 체계 다뤘다.

도대현 박사는 "한국 선종사에서 성철 선사상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선의 바른 길은 돈오돈수' 라는 수증관(修證觀)을 밝히고 깨침의 확실한 기준과 한국 선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점"이라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중도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과학에 접근한 점도 분석했다. 도대현 박사는 "중도사상이 단순한 관념론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소립자이론, 상대성이론 및 4차원 세계이론 등을 도입해 중도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며 "일반인들이 중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생생사업, 불교단체 3곳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29개 중 불교문화체험 1개



신라문화원의 '화랑 풍류 체험' 학습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공모한 2011 문화재 생생(生生)사업에 불교 관련 단체로는 여진불교문화재단,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신라문화원등 3곳이 선정 됐다.

문화재 생생(生生)사업은 대중이 문화재에 보다 재미있고 쉽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화재청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선정에 지원한 79개의 단체 중 불교관련 단체는 4곳 이었으며 이 중 3곳이 채택되었다.

여진불교문화재단은 '불교미술을 통해서 찾아보는 나눔과 배품의 정신' 을 주제로 불교문화 체험 교육 사업을 펼친다.

충북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는 '정북동토성에서 만나는 의 · 식 · 주 생생체험' 을 신라문화원에서는 '화장정신과 향가에서 배우는 기상과 풍류' 를 주제로 전통문화 교육 사업을 펼친다. 천진영 기자

명상으로 암치료 효과본다

명상연구원, 장현갑 교수 초청 공개강좌

명상연구원(원장 현종)은 '명상의 뇌과학'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붓다 브레인〉, 〈마음vs뇌〉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장현갑(前 한국심리학회 회장 · 영남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명상을 하면 마음과 뇌가 바뀐다' 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명예교수는 현대의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명상의 효과를 설명했다.

장 교수는 특히, 197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을 둔 MBSR 프로그램은 현대의학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다며 수련방법과 적용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임상에 도입된 명상법인 이완반응(RP),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MBSR), Ornish의 심장병 치유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고 이를 첨단 과학을 통해 증명해낸 연구 결과를 소개 했다.

장현갑 명예교수는 "명상은 우울증, 암, 심장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세포 노화를 억제해 치매를 예방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상연구원은 3~4월 명상수련 세미나와 함께 수련과정을 개설한다. (02) 1577-0373 천진영 기자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16



순례길서 평안 얻어

2004년 일본에서 개봉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고 하는 영화가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공전의 히트를 쳤다. 소설가 카타야마 쿄이치(片山恭一)가 쓴 것으로 300만부 넘게 판매된 소설에 바탕한 것인데 사실 한류의 영향을 받은 순수한 사랑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로 향하던 도중 남자 주인공 사쿠타로는 10여 년 전 죽은 연인 아키를 회상한다. 아키는 백혈병에 걸려 날로 악화돼 간다. 입원 중에 떠나지 못했던 수학여행지 오스트리아에 아키를 데리고 가기 위해 달린다. 바로 그 무대가 일본 네 개의 섬 가운데 하나인 에히메 현이 속한 시코쿠(西國)다.



킨키(近畿) 지역 관음사찰 순례인 사시코쿠(西國) 33개소 영장사찰의 스템프

두 주인공이 1400km에 달하는 시코쿠 88개소 영장을 도는 모습은 삶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무수한 순례자들을 연상하게 한다. 즉 쿠카이 열반 후, 수행승들이 대사의 행적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 순례길과 더불어 관음신앙의 확산에 이은 보타락(補陀洛) 정토를 찾아 떠나는 도해(渡海)의 출발지로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다. 이러한 순례나 순례자를 헨로(遍路)또는 오헨로상(お遍路さん)이라고 하며, 고대 말부터 여러 불교설화의 주제가 됐다. 이 순례는 연간 3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한다. 도시 사회에서 잃어버린 대자연과 우주의 숨결을 한 달간의 순례를 통해 되찾고, 현대인의 고통을 어머니처럼 안아주는 순례의 길 마지막은 언제나 삶의 희망으로 종결된다. 불법은 이처럼 이름없는 민중들의 소망 속에서 성장한 것이다. 일본의 영장과 불교의 사찰, 이를 둘러싼 무명의 불교신앙인들의 역사는 꽤나 오래됐다. 영장은 주로 산악을 중심으로 형성됐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자연신앙인 신도와 고대 말 불교와 융합하여 종교형태를 띠고 발전한 산악신앙의 일종인 수험도(修驗道)였다. 수험도의 영장으로는 카츠라기산(葛城山), 요시노산(吉野山), 쿠마노산(熊野山), 킨푸산(金峰山) 등 수도와 가까운 산악지대가 유명하다.

이러한 영장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사찰이 설립되면서 자연히 신앙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됐다. 고대 자연신앙을 불교가 흡수하면서 영장사찰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고대 남도(南都)의 사찰, 종합불교인 천태종계와 진언종계의 사찰, 그리고 일본불교의 토착화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카마쿠라(鎌倉) 시대 신불교의 사찰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고대 전반기의 사찰로써 남도 7대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 약사사, 원흥사, 흥복사, 동대사, 서대사, 법륭사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본불교의 원천인 고찰로써 순례로 체험한 수많은 영험담을 간직하고 있다. 고대 후반기 불교를 부흥시킨 천태종과 진언종은 히예산(比叡山)과 코야산(高野山)을 무대로 국가권력의 외호를 기반으로 한 영장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사이쵸(最澄)의 활동지인 천태종 연력사와 쿠카이의 진언종 본찰인 금강봉사는 지금도 순례의 중요한 코스로 자리하고 있다. 천태종에서는 매일 30km를 순례하는 천일 회봉행의 수행으로도 발전했다. 대표적으로는 호넨의 지은원, 에사이의 건인사, 신란의 본원사, 도겐의 영평사, 니치렌의 구원사, 잇펜의 청정광사 등을 들 수 있다.

> 어머니 품 같은 순례길서
> 불자들, 삶의 희망 찾아

〈다음주에 계속〉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친견용 명품(名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 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 · 빌미부정 · 귀물 · 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 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행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순서대로 철저히 구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가 500만원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면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육임으로 판단하는
시보, 내정, 초사 과격상의, 내외사 유무, 상하(남녀) 이해사 유무, 표리사 유무, 방문시간과 월장관계에서 체출되는 변수상의, 방문자별 차객지정 등등을 한 면 한 눈에 달아놓았고, 일생의 대계 명시, 고비전념사 명시, 초년 중년 말년 운세 명시, 사법 행정 외무고시 합격자 확정 명시, 육임사복법 인물류에 의한 개개별 신분 직업 확정 명시, 평생 나이별 운세 명시, 띠별 운세 명시, 평생 나이별 신변 가정 직장관계 변수사정 명시, 재복 형제복 전택복 자식복 노복복 부부복 질액여부 거주주택복 관록복 노후복 상모형태 명시, 당면 정황 및 비밀사정 명시, 남녀 혼인기 명시, 배우자 용모 성질 명시, 육친별 신체장애자 명시, 귀신, 부정, 귀물, 산소탈 및 묘지 속 상태 명시, 이의 각 해소지침 명시, 운세별 변화직업 명시, 수명관계 명시, 개개별 고질병 치유 불치유 관계 명시, 평생 조력 해독관계 명시, 가정사 면모 명시 등등–

1인의 육임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에서부터 그 사람의 일생사 및 당면사가 한 면 한 눈에 판단되도록 정형화로 구성시켜 그 백인백색적인 판단 해석을 불식하고, 일원화를 완성하였으므로 우리 동도인의 활인사역에 간편하되 더 높고 더 큰 차원으로의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육임운명판단법을 한 면 한 눈에 1人 및 그 가족 전체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만 근 1년이 소요되었고, 위의 모든 법칙을 사실적 명시로 한 자 한 자 정형화시키는 데는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지해드립니다.

저자 저술안내

육임활용서 – ■효사육임산책(좌정용1권 / 휴대용6권) ■도사에게물어봐(1권) ■육임풍수(1권) ■육임1년신수비결(1권)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1권) ■불가법요집(1권)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12권) ■효사육임사주감정법(1권) ■육임대계전서(60권) ■오행제례의식집(1권) ■육임래정비법(좌정용1권/휴대용6권) ■도정기(1권)

육임학습서 – ■효사육임강론上·下(2011제8판 최종본) ■효사육임강의비디오(96개) ■위 각 활용 · 학습서는 2011 개정 · 증보판 입니다.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참여불교재가연대 리더스포럼 조수철 교수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일생동안 480여 곡에 이르는 곡을 작곡 했다. 20대 후반에 청력장애를 앓기 시작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작성하지만 자살을 포기하고 삶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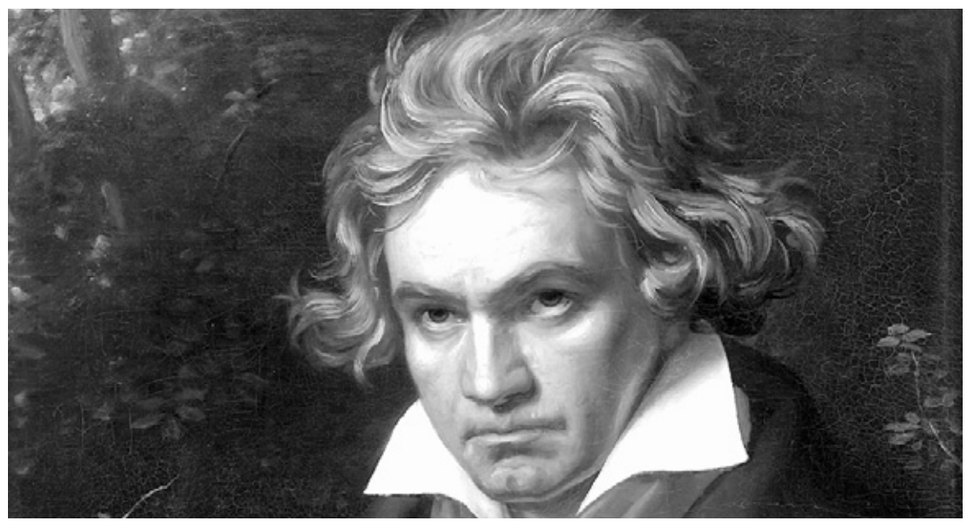
베토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에 대해 좌절하고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인격적인 성숙을 성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취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베토벤은 거의 전 작품을 청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작곡했다.

서울대병원 조수철 교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 베토벤의 저서는 가리지 않고 구해봤고, 그가 살던 곳 그의 무덤, 기념관 등 베토벤의 발길이 닿았던 곳은 빠짐없이 찾아 다녔다. 이러한 베토벤에 대한 열정으로 일간지에 '베토벤 이야기'를 연재하는가 하면 베토벤협회 학술이사까지 맡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베토벤전문가다.

한 예술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그는 베토벤의 음악의 핵심사상을 '대극(大極)의 합일(合一)'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다. 나와 너, 주체와 객체, 연주자와 청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해 음악으로 거대한 하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김동건)은 3월 8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조수철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를 주제로 참여불교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는 不二사상 녹아있어

베토벤 전문가 조 수 철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베토벤은 나와 너, '연주자와 청중' 초월해 작곡"

베토벤의 음악에 담긴 불이사상

베토벤은 일생동안 480여 곡에 이르는 곡을 작곡했다. 대표적인 분야는 9편의 교향곡,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16곡의 현악 4중주곡, 3편의 종교음악, 10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5곡의 첼로 소나타, 7곡의 피아노 3중주곡, 5곡의 피아노 협주곡 등이 대표적인 곡들이며, 이외에도 많은 성악곡들과 작품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277곡이 있다. 이러한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베토벤의 기본적인 개혁정신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였다.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베토벤이 취한 방법은 대극의 합일(Gegensatzvereinigen)이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不二)사상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베토벤은 '성악과 기악'이라는 대극적인 관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 이전의 모든 작곡가들은 성악과 기악이라는 대극적인 모델로 작곡에 임했다. 즉 성악을 위한 곡과 기악을 위한 곡은 서로 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베토벤은 합창환상곡과 '제9번 교향곡'에서 마지막 4악장에 합창을 포함시킴으로서 성악과 기악을 하나로 통괄하고 있다.

둘째, 베토벤은 '강함(強)과 부드러움(柔)'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러한 정신은 교향곡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베토벤은 모두 9곡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이 중 홀수번호(1,3,5,7,9번)는 강렬하고 남성적인 곡들이며, 짝수번호(2,4,6,8번)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곡들이다. 전체 9곡의 교향곡들에서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 즉 강(強)과 유(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고 있다.

셋째, 베토벤은 '투쟁(鬪爭)과 평화(平和)'를 하나로 통합했다. 전형적인 예가 '제5번 운명교향곡'과 '제6번 전원교향곡'이다. 제5번 운명교향곡은 가혹한 운명과의 처절한 투쟁, 이 투쟁 끝에 이끌어내는 인간승리를 그리고 있는 곡이다. 그러나 제6번 전원교향곡은 자연에 순응하며 더불어 사는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 이에서 느끼는 환희, 자연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 두 곡은 거의 동시에 작곡된 곡들이다. 투쟁과 평화라는 대극적인 가치가 베토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베토벤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통합했다. 제6번 교향곡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원교향곡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을 절묘하게 그리고 있다. 실제 베토벤은 자연예찬론자였다.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을 즐기고 산책하면서 자연으로부터 깊은 음악적 영감을 받았다.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서 인간과 자연은 하나였다.

다섯째, 베토벤은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은 초기시절부터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해 작곡했다. 특히 현악4중주곡에서는 많은 부분이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화로움은 부조화로움이 존재해야 지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베토벤의 음악에서는 이러한 대극적인 가치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여섯째, 베토벤은 '성(聖)과 속(俗)'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은 종교음악으로는 중기의 C장조 미사곡(Op. 86, 1807), 후기의 장엄미사곡 D장조(Op. 123, 124),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Op. 85, 1803)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종교음악에서 상당부분은 세속적인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토벤 이전의 음악가들은 '종교와 세속'을 대극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작곡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세속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이 없는 종교란 존재할 수 없고, 종교가 없는 세속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성과 속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베토벤의 명작 480여 곡은 진선미의 극치
'강함과 부드러움' 등 대극의 합일 이뤄

일곱째, 베토벤은 '전통과 개혁'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처럼 완벽하게 개혁을 성취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토벤은 전통(보수)적 가치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후기 현악4중주곡'들이다. 이 곡들에서 한 악장은 반드시 모차르트나 하이든 풍의 악장으로 작곡했던 것이다. 개혁을 시도했지만 전통을 중요시한 베토벤의 '대극의 합일사상'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다. 교향곡의 작곡에 있어서도 3~7번까지 개혁적인 곡을 쓰다가 8번에 이르러서는 다시 전통적인 모델로 되돌아가고 다시 9번 교향곡에서는 음악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개혁을 하기 전에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베토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토벤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이 일생동안 가장 애착을 가진 주제는 '영웅주제(Hero theme)'였다. 영웅주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회 모든 종족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주제로서 인간 심성의 원형(archetype)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주제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탄생(Birth)-죽음(Death)-재생(Rebirth)의 3구조이다. 영웅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상징적 의미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부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는 존재를 이른다, 즉 보편타당한 가치를 위해 스스로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는 존재가 영웅이다. 작곡 분야에 있어서는 제3번 영웅교향곡이 대표적이다. 이 교향곡은 제1악장이 '영웅의 탄생', 제2악장-영웅의 죽음(장송행진곡), 제3악장-영웅부활의 준비단계, 제4악장-영웅의 부활, 재생의 구조를 갖는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베토벤은 피아노 변주곡으로 만드는데 바로 '영웅주제에 의한 피아노 변주곡(Op. 35 1802)', 발레음악인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Op. 43, 1801)'이다. 이 외에도 코리올란 서곡(Op. 62, 1807), 에그몬트 서곡(Op. 84, 1810), 웰링톤의 승리(Op. 91, 1802) 등이 영웅을 주제로 한 곡들이다.

베토벤의 경우 실제 자신의 실질적인 체험(1802년의 하이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이름)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즉 베토벤 자신의 삶 자체가 영웅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베토벤은 자신의 삶이나 음악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과제를 합일시킴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토벤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이며 또 미래의 인물이기도 하다.

#악성으로서의 베토벤, 그 교훈

베토벤은 '악성(樂聖)' 즉 '음악에 있어서의 성인'이라고 불리고 있다.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적인 발달과정을 통해 베토벤이 어떻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로 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덴, 파이퍼, 로바티니, 리스, 네페, 쉥크, 알브레헤츠버거, 살리에르, 드라고넷티, 하이든 등 베토벤의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그 당시의 훌륭한 음악선생님들로부터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많은 후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의 영향을 들 수가 있다. 여섯 번째는 베토벤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다. 마지막으로는 베토벤이 앓고 있었던 여러가지 질병들을 들 수가 있다.

조 수 철 교수는…

194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다. 예일대학 소아연구 센터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며 유아 자폐증, 주의력 결핍증, 소아정신 약물학에 대해 연구했다.

조수철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6년 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발달학적 측면' '베토벤의 아홉교향곡들-발달학적 측면' 등의 글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베토벤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 등이 있다. 책을 통해 그는 베토벤의 음악과 음악적 사상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베토벤의 음악이 인간의 삶, 불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했다.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

최면 심리요법 특별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미국 커버넌트대학 상담학박사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 지도자 협회장
미국 국제 최면 치유학회이사
일본 최면의학 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에서 최면학강의
공무원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등에서 최면특강

KBS, MBC, SBS, YTN, tVN 등 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한 최면요법!

최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교수하고 있는 정신과학입니다.

대체의학, 종교지도자 또는
일반인, 주부, 직장인 등
최면학에 관심있는 모든 분!

무료 공개 강좌

3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당일 참석하시면 "최면 시연"을
직접 보실 수 있으며 사전 전화
접수 하신 30분께는
"마음치유 최면 CD"를 증정합니다.

▷ 강의내용 ◁

- 전생퇴행요법, 빙의치유법, 자기조절법, 타인조절법
- 불면해소, 불쾌감정소거, 금연, 금주, 습벽교정 등
-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집중력, 기억력증강법
- 성격개선, 대인관계개선, 발표불안, 자신감고취 등

미국 스탠톤 대학교(Stanton University) 부설

한 국 최 면 과 학 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 www.hypnos114.com / ☎ 042)255-0734

승적 상실자가 천도재를?

익산지역 불자들 사자암 천도재에 불만 토로

조계종에서 물의를 빚어 승적을 상실한 출가자가 조계종 사찰인 익산 사자암에서 천도재를 주관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천도재 모집 과정에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지역 불자들의 피해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前 조계종 승려, 재단불교 생활불교 총재 정다운 스님은 2월 19일 익산 사자암(주지 향봉)에서 '축생천도재 및 구제역병 영구소멸기원 법회' 법문과 천도의식을 주관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이날 천도재에는 조배숙·이춘석 의원, 유기상 익산부시장, 박종대 시의회 의장, 김영배·배승철 도의원, 김대중·김대오·김정수 시의원, 축림 박관구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회는 정다운 스님이 법어와 함께 20여 분간 천도염불을 지내는 등 2시간 동안 법회를 집전했다고 보도했다.

정다운 스님은 총재로 있는 '재단법인 생활불교' 홈페이지에 2008년 회원을 모집해 익산 사자암에서 천도재를 지낸 기록을 버젓이 올려놓고 있다. 천도재는 1회당 동참금 20만원 1년간 21회를 봉행해 왔다. '재단법인 생활불교' 홈페이지 2008년 게시물 중에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반드시 성사돼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등 총 12개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자신이 진행하는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고 올려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불자는 "최근에도 정다운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수시로 사자암에 와서 천도재를 지냈다"며 "2007년경에도 대규모 법회를 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포교사단 관계자는 "일반 무속인들과 다름없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계종은 물론 불교계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었다"며 "교세가 열약한 전북지역에서 불교전통의식인 천도재가 한 출가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 스님들인데도 정작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운 스님의 측근인 생활불교 관계자는 "향봉 스님이 사자암에 신도도 없으니, 사자암에 와서 천도재를 지내달라고 요청해서 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은 "정다운 스님이 조계종 승적을 반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도재나 영산재 등에 타 종단의 기능보유자가 와서 법회를 보는 경우는 흔히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정다운 스님을 모시게 된 것은 염불을 내가 못할 뿐 더러, 구제역 천도를 지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봉 스님은 평소 천도재 봉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사자암에서 꾸준히 봉행된데 대해서 대답을 회피했다. 스님은 "이번 구제역 천도재는 청정지역이던 전북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익산시와 시의회, 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미륵산에서 산신제 등을 지내고, 미륵산에 있는 사자암에서도 천도재를 지내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지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호법부는 "조계종 승적이 말소된 사람이 조계종 사찰에서 법회를 집전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육사업과 인재 양성 집중"

법 만 스님 선운사 주지 재임… 안정과 발전 기틀 마련

"그동안 추진한 일을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4년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사진)이 재임함에 따라 선운사가 펼쳐온 승려노후 수행관, 승가대학원 운영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만 스님은 3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수행과 포교, 복지와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선운사는 그동안 활발한 지역복지 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선운사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지역 내 5개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0~600명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선운사 및 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도 펼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운사는 또 지역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특화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고창 주민에게는 선운사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중요한 소임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승려 노후 수행관' 건립은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해도 노후 근심이 없는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한 선운사의 주력 사업이다. 현재 노스님을 위한 한옥 2동이 신축 공사 중이며 6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법인을 설립해 '승려 노후 수행관'과 선운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또 3월 19일 불학승가대학원 개강을 앞두고 있다. 승가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립부터 운영까지 선운사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선운사를 교학과 수선의 도량으로 만든 역대 조사님의 뜻을 계승해 선운사를 수행의 도량으로 만들 것입니다. 수행자는 안정된 환경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운사의 백파사상 연구소는 조선 시대에 활동한 선운사 고승 백파 긍선 스님의 가르침을 연구한다. 9월에는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백파 스님과 선운사 역사와 인물에 대해 연구한다.

교구본사 신도회 구성과 선운사 신도조직 강화, 본말사 연대 포교 활동도 올해 법만 스님이 선운사 발전을 위해 주력하게 될 계획들이다. 신도회는 24교구 본사와 말사를 총괄해 구성하고, 본사 신도회 강화를 위해 지역별 모임과 직장 모임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대 생활에 맞는 일요법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차 모임반 등을 운영한다.

"고창읍에 불교회관을 건립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군포교, 군산교도소 법회, 지역 불교모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불교환경연대와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생명·환경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선운 문화제'에서는 산사음악회, 학술세미나, 박물관 전시회, 보은염 이운 등이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성격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만 스님은 또 선운사 주지로서 재정관리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개와 투명 행정을 통해 사찰 재정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신도 기부금, 임대사업 외 사찰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 종무행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말사의 불사 및 각종 행정 지원, 총무원-본사-말사로 이어지는 상호 연계시스템도 마련한다.

"교육사업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지로서 이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안정된 종무행정과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박기범 기자

선운사 제16대 활동 계획

수행·교육	포교	복지	문화	불사	종무행정
승가대학원 지원	교구본사 신도회 준비 및 본사 신도회 강화	승려노후수행관 건립 및 복지법인 설립	선운사 성보박물관	대웅전 부분 보수 및 후불벽화 모사	사찰 특성 살린 수익 모델 창출
교구재적승 지원	불교회관 건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고창군 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운영	선운 문화재	박물관 수장고 및 보완시스템 마련	사찰 재정의 투명화, 효율화
백파사상 연구소 지원	본말사 네트워크 구성	지역주민 의료봉사	석전 스님 선양 사업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	합리적 종무행정 및 전산시스템
동국대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연대활동	지역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벨트 조성	해외동포 템플스테이 신축	말사 불사 및 각종 행정 지원

'무등에서 길을 찾다'

무등산 증심사, 출재가 33인 릴레이 초청 법회 개최


3월 월호 스님


4월 도영 스님


5월 이상벽


6월 용타 스님


7월 묘허 스님


8월 도법 스님


9월 우희종


10월 설우 스님


11월 이미령


12월 심산 스님

광주 증심사(주지 지장)는 취백루에서 3월 19일부터 월 1회씩 33명의 불교계 스님과 재가 학자들로부터 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불자로서의 삶, 사회적 현안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

초청법석은 '무등에서 길을 찾다. 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3월 19일 쌍계사 강사 월호 스님, 4월 17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5월 17일 방송인 이상벽 씨, 6월 16일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7월 15일 방곡사 조실 묘허 스님, 8월 7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9월 18일 우희종 서울대 교수, 10월 11일 법인정사 회주 설우 스님, 11월 10일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12월 9일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등 법석을 연다. (062)226-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2의 인생 꽃피우다

노인일자리사업 발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이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복지관은 3월 10일 건전한 노인문화형성을 위한 2011년 노인연계프로그램 복운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복운아카데미는 수지침 강사, 실버기자단, 실버체육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교육으로 고창지역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12월 3회기에 걸쳐 주1회, 2시간씩 진행된다.

11일에는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시민의 관심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형 △교육기관 및 관련시설에서 활동을 하는 교육형 △지역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도서관 관리를 위한 공익형 △농어촌 일손 도우미를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으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 오색공단등 / 팔각접등 / 만월등 /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일요일, 법회가는 날

범어시 포교사회, 11년간 매주 일요일 법회 열어



부산 범어사 포교사회는 3월 6일 일요법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일반 사찰에서 법회는 초하루와 보름, 지장재일과 관음재일에만 열린다. 사찰에 따라서는 약사, 미타 등 한두 번의 법회를 더 갖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주기와 맞지 않자 일요법회를 여는 사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11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내 설법전에서 일요특별법회를 봉행해 왔다.

부산 범어사 포교사회(회장 신규범)는 3월 6일 설법전에서 일요법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일요법회의 모든 불자들이 정진력으로 내 이웃과 불법을 만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한다면 우리 사회 또한 맑고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법귀 스님은 "조계종 교구본사 중 최초로 포교사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대중법회인 만큼 다른 사찰의 유사법회의 모범이 되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규범 범어사포교사회장은 "11년간 높은 법력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일요법회를 이끌어 주신 스님과 포교사회 전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큰 포교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참된 보살행을 실천하고 정진하자"고 말했다.

범어사 일요법회는 조계종 교구본사 중 최초로 포교사가 주축이 돼 진행돼 왔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포교사회의 주관으로 2001년 3월 재가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돼 왔다. 2002년 1월 부산경남포교사단 내 '지역봉사분야 범어사포교사회(회장 신규범)'를 발족해 법회를 전담하면서 이후 일요법회는 11년 간 불자들에게 다양한 생활법문을 제공했다.

범어사 일요법회는 회원제를 실시해 불자들의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불행(佛行)으로 옮기는 것은 필수다. 이들은 부산 내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등의 포교사각 지대에서 보시행을 펼치는 등 회원 단위로 활동을 진행해 신도들의 참여율도 더욱 높이고 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가게 문 열기 전 '관세음보살' 외워요"

다선일미 실천하는 차 포교사 다실 여여해, 전영옥 불자

3월 꽃샘추위가 매섭다. 한 커플이 광복로 경륜빌딩 1층 다실 '여여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커피숍을 기대했던 커플이 아차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한다. 찰나 상냥한 미소를 띤 찻집주인의 손에 이끌려 차를 시음했다. 차를 낯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실 '여여해' 대표 전영옥(43, 여여해) 씨는 즉석해서 조촐한 다품(茶品, 차를 품평함) 자리도 마련했다.

부산 패션1번지 광복로에 자리한 다실 '여여해'의 상호명은 전영옥 씨의 법명이다. 차 수행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전영옥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차를 즐겨마시던 언니의 모습을 동경하며 다인을 꿈꿨다. 그의 다인 인생은 부산 여여선원 신행학교 회장이던 언니를 통해 여여선원에 가게 되면서부터다.

"한 스님께서 불이문 앞에서 '이 문을 통과할 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세상사 알음알이를 다 버리고 들어오라'고 설명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불같은 신심이 일어나 당장 신행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없이 외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려낸 맑은 차를 부처님 전에 공양으로 올리고 난 뒤에 일을 시작한다. 비로소 몸과 마음이 손님 맞을 채비를 마치는 것. 이는 전 씨가 처음 찻집을 열었던 10년 전부터 이어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전 씨는 차가 곧 수행의 방편이라고 확신한다. 도반들과 차담을 나눌 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법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인지 손님 대부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가 많다. 혼자 찾아와 찻잔에 비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럿이 함께 차를 나누며 공부를 점검하기도 한다.



차 공양으로 하루 시작… 10년 동안 이어와
법정 스님께 차 공양 보답으로 다구선물 받기도

"차를 마시면 일단 마음이 차분해지니 스스로를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담은 잡담이 아닌 법담으로 이어지는 대화의 자리를 열어주고 마음을 나누게 도와주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불교만 유난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느린 만큼 더 많은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 재가불자들이 주된 손님이라면 해제철이면 선방스님들이 여여해를 찾아온다. 전 씨는 가게를 찾는 스님들께는 항상 존경의 마음을 담아 차 공양을 올린다. 얼마 전 1주기를 맞은 故 법정 스님께서도 전영옥 씨에게 차 공양에 대한 보답으로 귀한 다구를 선물해주기도 했다. 가게 한 켠에는 한 스님께서 티벳에서 가져온 만다라와 족자 등이 전시돼 있다. 또 보통 전통 찻집과는 달리 무선인터넷과 최고급 음향 및 영상시설을 갖춰 차별화 하고 있다. 차와 불교에 생소한 젊은 세대와 이웃종교인들도 누구나 차 맛을 음미하며, 다도문화 속에 담긴 불교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포교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편이 '차' 잖아요. 맛있는 차를 대접하고 법담을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051)256-9859 박지원 기자

'5대결사운동' 결의 다져

범어사 · 조계종부산聯 3월 17일 부산 KBS홀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이후 부산지역 불교계에서는 종교편향정부와 장로대통령이라는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범어사는 부산불자들과 함께 조계종 '5대결사운동'에 대한 실천 결의 의지를 굳게 다질 계획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부산불교연합회장)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안국선원장)와 함께 3월 17일 오후 2시 부산KBS홀에서 민족문화수호대법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에 스님 500여 명, 조계종 소속 신행단체 및 재가불자 7000여 명 등 최소 8000여 사부대중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공보대변인 정산 스님(범어사 총무국장)은 3월 3일 부산 황련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집행부는 화쟁위원회를 만들어 상생과 화합, 대화와 소통을 이끌어왔으나, 정권은 끝없이 종교 편향을 책동해 왔다"며 "민족문화수호대법회는 정부 규탄대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인지 느끼고 알아차리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참가자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통문화에 한걸음 더 다가야 한다.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즐거운 공연이나 영상물 등을 계획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산 스님은 "유네스코에서 팔만대장경, 석굴암을 지원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우리 문화재를 보전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오랫동안 전승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올해 연등축제 어떻게? 봉축슬로건·창작등 공모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3월 7일 부산시민연등축제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축제는 4월 15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서막을 올릴 예정이다. 4월 29~30일 광복로 일대에서 '봉축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봉축연합대법회'는 5월 7일 오후 3시 구덕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오후 6시 축제의 백미인 제등행진을 시작한다. 제등행진은 구덕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대청로를 경유, 오후 8시 부산역 광장에 집결해 '회향대동한마당'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한편 '봉축슬로건 공모전'과 '창작등경연대회'를 통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봉축슬로건 공모전'은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주제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과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부산시민연등축제를 통한 부산사랑과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당선작 1점 30만원, 가작 1점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3월 28일까지 연합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창작등 경연대회'는 부처님오신날, 부산 상징, 전통문화, 기타 창작 등 다양한 주제로 표현 가능하다. 우수작은 제등행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품규격은 가로 50㎝, 세로 100㎝, 폭 50㎝ 이내로 제한된다. 우수작품에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특선 30만원, 입선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051) 867-0501~3 www.bba48.or.kr

박지원 기자

두타행자 종일 스님 입적

평생 수행·두타행 실천… 11일 경주 기림사서 다비

출가 이후 수행에만 전념해 온 불국사 종일 스님이 세납 50, 법랍 27년으로 3월 10일 입적했다.

종일 스님은 1985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5년과 1988년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사미 시절이던 1986년 천안 광덕사선원 동안거를 시작으로 용화사 법보선원, 덕숭총림선원, 범어사선원, 운부암선원, 내소사선원, 대흥사 동국선원, 남국선원 무문관, 무일선원무문관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출가이후 지난해까지 25년을 빠짐없이 정진했다.

2007년 골암으로 왼쪽팔을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함께 발우공양을 할 수 없으니 무문관에서 수행하겠다며 제주 남국선원과 경주 무일선원 무문관에서 정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해제철에는 해남 미황사에 머물었던 스님은 매일 새벽예불을 마치고는 남몰래 대중화장실을 4곳이나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삼시공양 후에는 쓰레기 봉지를 들고 포행을 다녔다. 또한 마음과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상담과 치료해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한편 스님의 다비식은 3월 11일 오전 11시 경주 기림사에서 엄수됐다.

노덕현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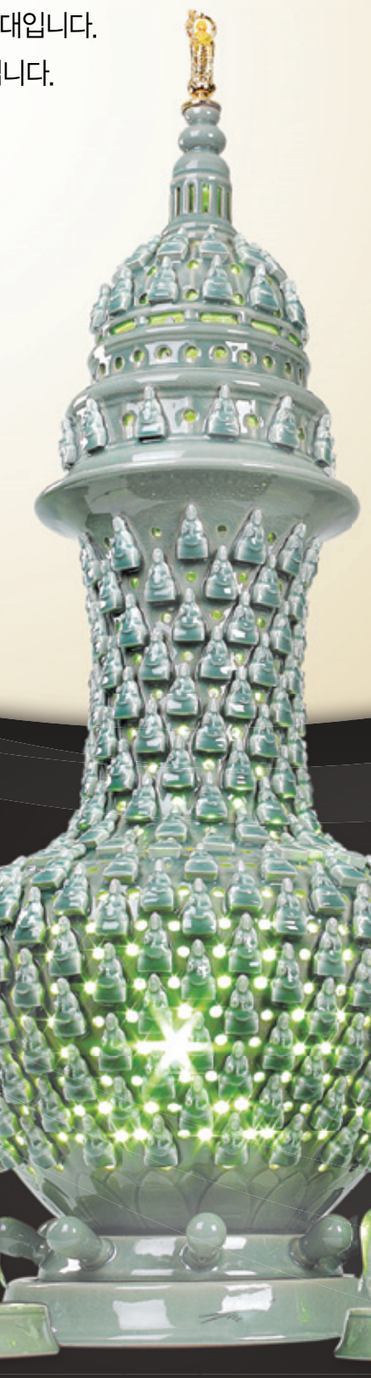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덕유산 청다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보살은 보시(布施)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같이 한다.

열반경(涅槃經)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비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입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用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종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총본산 :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연락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스님 011-677-8525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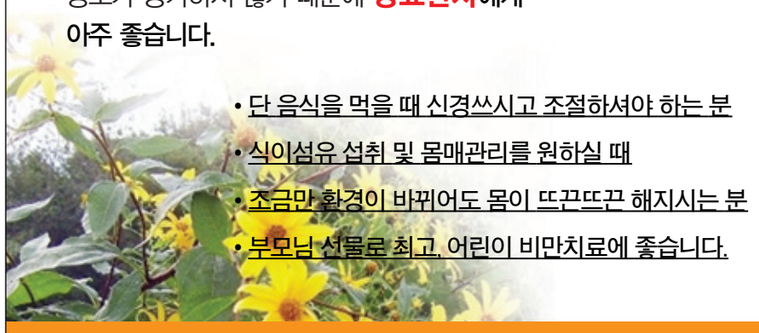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 원 선 원 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 에너지 전문
컨 설 턴 트
무 료 상 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 KR2007 / 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 (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담) / 010-3534-8366 (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조선 선조 22년(1589) 진묵 스님이 낙서전 마당에 심어놓은 팽나무 너머로 철새들이 날아가고 있다.

❸ 김제 망해사(望海寺)



부설이 바라보던 그 바다는…

길지 않은 소나무숲을 돌자 눈앞에 홀연히 바다가 다가온다. 수평선을 따라 눈을 돌리면 작은 도량이 나타난다. 망해사다. 봄을 기다리는 부푼 가슴 속으로 느닷없이 서해의 칼바람이 밀려든다. 봄은 '이른 생각'이었다. 푸른 바다를 뜰로 삼아 땅 끝에 걸터앉은 절, 망해사. 그 뜰에는 아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등대처럼 서있는 범종이 차가운 바다를 읽어주고, 낮게 앉은 낙서전(樂西殿) 돌담 위에 차가운 바람이 쌓인다.

망해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년)에 부설 거사(생몰년 미상)가 세웠다. 부설의 망해사는 바다에 잠겨 사라졌고, 조선 선조 22년(1589년)에 진묵 스님이 낙서전을 지어 중건했다. 망해사는 한가롭고 단출한 도량이다. 주불전인 극락전과 낙서전, 삼성각과 요사 한 채가 전부다.

'역사'보다는 '전설'로 부르고 싶은 이름 '부설.' 그는 어느 날 이곳 김제 땅을 지날 때 벙어리로 살고 있는 묘화를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말문이 터진 묘화의 간곡한 청혼을 외면하지 못하고 속세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훗날 그의 이름은 한국 불교사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글자로 남는다. 그는 왜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 절을 지었을까. 너무도 분명하고 한 점의 미련도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가끔은 홀로 바라볼 곳이 필요했던 것일까.



낙서전과 범종각 사이에 서서 서해의 차가운 바람을 마시면 절은 부설이 보았던 그 바다를 다시 보여준다. 홀로 나는 갈매기. 기우는 석양. 수평선 위의 고깃배. 뜰 앞에 쌓이는 파도. 망해사는 바다를 보여주기 위한 절이다. 부설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절을 지었고, 절은 그에게 바다를 보여주었다. 중생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그에게 바다는 그가 가슴 속에서 홀로 그려나간 만다라가 아니었을까.

사실 지금 망해사가 바라보는 바다는 부설이 보았던 야생의 온전한 바다는 아니다. 방조제에 가둬 기른 바다 아닌 바다다. 하지만 또 다시 부설이 이 자리를 지난다고 해도 그는 다시 이곳에 절을 지을 것이다. '무상(無常)'이 진리임을 모를 리 없는 그가 마음이 설 자리를 가릴 리 없기 때문이다.

만경평야를 지날 때 만났던 철새들이 낙서전 팽나무 위를 날아간다. 아무도 모르게 바라봐야 할 곳이 필요하다면 망해사로 갈 일이다. 새로운 날개짓으로 망해사 뜰 앞을 날아볼 일이다. 앓고 있는 중생의 곁에서 홀로 바라보던 부설의 바다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6〉

중생제도 해도 한 바 없으니 보살

어떤 서생이 떠나려고 인사를 했다.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화상께 폐를 끼쳐드렸습니다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훗날 한 마리의 당나귀가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으로 하여금 어찌 말안장을 얻게 하는가?"

有秀才辭去云 某甲在此括撓和尚多時 無可報答和尚 待他日作一頭驢來報答和尚

師云 教老僧爭得鞍

한 때 어떤 선비가 여러 날을 조주 선사의 절에서 묵었다가 조주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동안 선적인 생활과 설법을 들었던 터라 선적 비유를 들어 인사를 올렸다. 훗날 한 마리의 당나귀가 되어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한 것은 언젠가 조주 선사를 위한 노복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을 절대 바라지 않았다. '날더러 말안장을 얹으라는 말인가?' 하고 말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깔고 한 말이다. 승가에서는 승려가 축생의 등에 타는 것은 금기돼 있다. "자네의 그런 생각은 날더러 파계하라는 말과 같으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게" 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니 은혜 같은 것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진정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절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조주 스님이 도오(道吾) 스님 처소에 이르렀을 때였다. 조주 스님이 승당에 들어서자마자 도오 스님이 말했다.

"남전의 화살 하나가 왔구나."

조주 스님이 말했다.

"화살을 보아라."

도오 스님이 말했다.

"지나가 버렸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명중한 거야."

"당나귀 돼 은혜 갚겠다"에
"말안장 얻게 하지 말라"해

師到道吾處 纔入僧堂 吾云 南泉一隻箭來

師云看箭

吾云過也

師云中也

조주 스님은 60세가 넘어서 스승 남전 스님이 죽자, 비로소 천하를 다니면서 행각했다. 본 〈조주록〉에서도 나오듯이 조주 스님은 간혹 방문 중인 선사들과 선문답을 나누곤 했다. 이것을 도오 스님이 알고 있었는데, 마침 조주 스님이 승당 안으로 쑥 들어선 것이다.

도오 스님은 조주 스님을 보자, 직감적으로 선문답을 하러 온 것을 알았고, 조주 스님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화살을 보아라' 하고 선문답을 걸은 것이다. 따라서 도오 스님은 승당 안의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도오 스님 역시 선의 안목이 있는 선승이라 즉시 대꾸하는데 막힘이 없다. "스님이 '화살을 보아라' 라고 말했으니, 그 자체가 벌써 다른 데로 빗나가 버린 거요"하고 말한 것이다. '화살을 보아라' 하고 말한 것이 틀렸다는 말인데, 도오 스님은 분명 정확하게 본 것이다. '화살을 보아라' 라는 말은 도에서 빗나간 것이다. 도에 대한 안목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말이다. 그러나 천하의 조주 스님은 유연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명중한 거야. 그대가 나의 말에 대해 응대한 것 자체가 바로 화살을 받아들인 것이니, 그대의 마음 중앙에 나의 화살이 박힌 것이 아니고 뭐겠어? 나는 이미 그대의 수준을 파악했단 말이야" 하고 말한 것이다.

조주 스님의 순발력이 기막히다. 언뜻 보면 조주 스님의 이 명중이라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조주 스님의 이 명중을 밟아버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 본 납자에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 말은 다음과 같다. "둘 다 죽은 거야."

–〈조주선사 어록〉 상권 끝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36 한국선과 선어록 7 종문원상집

선어록 기호와 상징 엮은 책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 1권은 선종에서 전승해온 원상에 대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고려 중기 지겸(志謙)이 기존의 선어록에서 온갖 부호, 기호, 상징, 도상(圖像)과 관련된 법어를 간략하게 추려서 엮은 것이다. 1219년에 청진몽여가 쓴 발문에 의하면 원상 170칙을 선별해 간략한 법어와 함께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상(圓相)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에 남양혜충 국사로부터 비롯됐는데, 그것은 실로 불조의 명맥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원상이 담고 있는 종지는 매우 그윽하고 대단히 미묘해 분별사식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모두 어렴풋하고 막연하게 그 주변만 살짝 맛볼 뿐이다. 하물며 그 깊은 의미를 발양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남양과 위앙이 노래한 이후로 그것을 전승한 자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왕사로서 화장사의 대선옹께서만 유독 그 원상의 도리를 설명해 선성의 골수를 파헤쳤다. 선적(禪寂)의 경지마저 벗어난 뛰어난 안목을 구비해 모든 가풍의 선록 가운데서 제작된 원상 170칙을 수집해 그것을 판목에 새기고 출간해 무궁하게 전승했다. 이에 우레와 같은 대법고로써 원상의 도리를 널리 펼쳤으니 그 어찌 대법의 발흥이 아니겠는가.

이제 대법의 발흥을 기다릴 뿐이다. 남양과 화장사의 두 큰스님은 모두 국사이시다. 국사께서 원상을 제작하시고 국사께서 그것을 계승시켰으니 가히 희세의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적의 작자를 알아준 이가 어찌 화장의 국사의 공로가 아니겠으며, 오늘에까지 그것을 전승시켜준 이가 어찌 남양국사의 공덕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개중에 담겨 있는 도리는 모든 선지식들조차도 그려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 화장국사께서 섭수해 놓은 무진의 일원상에 대하여 형안을 구비한 납자라면 어디 한번 잘 살펴 분별해 보라.]

순지의 원상 18종 등 상황별 원상 수록
정형화된 동산의 편정오위 도상과 달라

원상의 원류(遠流)로는 용수 대사가 허공에 올라가 원상(圓相)을 보이고는 그 자취를 감추어버렸다는 〈전등록〉에서 찾기도 한다. 어느 때 용수가 자리에 앉은 자세로 있으면서 월륜상(月輪相)을 보였다. 그리고 대중한테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다음과 설법을 하는 소리만 들렸다. 이에 대해 그 제자 가나제바는 '이것이야말로 상서로운 일이다. 스승께서는 불성을 드러내고 설법을 하는데 있어 소리와 형색을 초월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승에 대한 원상의 계보는 〈조정사원〉 권2, 〈인천안목〉 권4, 〈오가정종찬〉 권하 등으로 자료에서는 한결같이 원상을 처음으로 그려 보인 것은 남양혜충 국사로부터 비롯됐으며, 그것을 혜충의 제자 탐원이 이었고, 탐원은 앙산에게 계승시켜 위앙종의 종풍이 됐다고 전한다. 가령 〈조당집〉 권3의 혜충국사장에는 "어느 날 승이 오는 것을 보고 국사는 손으로 원상을 그리고는 그 속에 일(日)자를 써 넣었다"고 전한다. 이렇듯이 혜충에게는 원상 96종이 전승됐지만 그에 대해 일찍이 40칙의 원상을 그려서 전승했다는 명주 오봉산의 양(良) 화상에 의하면 원상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명칭이 붙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원상(圓相)의 경우에는 절대의 진실 곧 진실 그자체로서 일원상을 가리킨다. 둘째, 의해(義海)의 경우에는 모든 삼매의 뜻은 일원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암기(暗機)의 경우에는 주객의 분별이 생겨나기 이전의 작용을 가리킨다. 넷째, 자학(字學 혹은 多字學)의 경우에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다섯째, 의어(意語)의 경우에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종의(宗意)라는 것을 가리킨다. 여섯째, 묵론(?論)의 경우에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종의(宗意)에 부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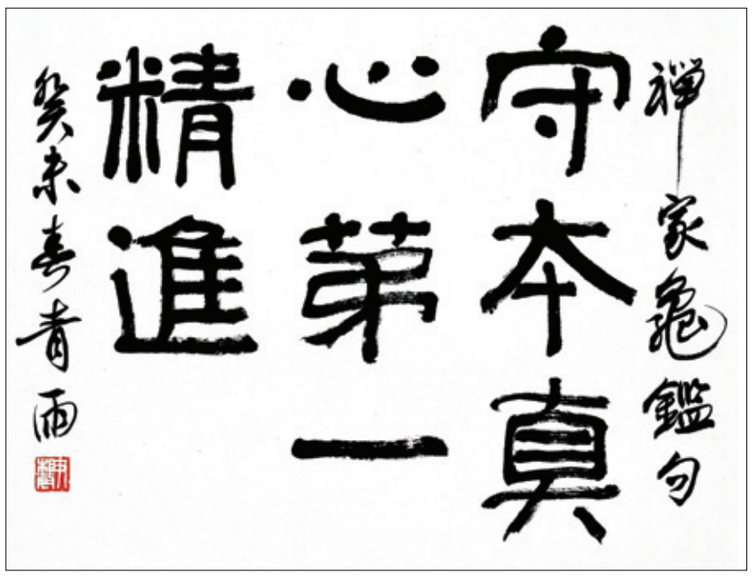
〈종문현감도(宗門玄鑑圖)〉에 수록돼 전하는 혜충의 96종 원상도는 세분화하면 120종이 되지만 내용으로 간주하면 그것은 모두 19문으로 시설(施設)되어 있다. ①수시삼매문(垂示三昧門) ②문답호환문(問答互喚門) ③성기무작문(性起無作門) ④연기무애문(緣起無碍門) ⑤ 명기보호문(明機普互門) ⑥매합빈주문(昧合賓主門) ⑦삼생불격문(三生不隔門) ⑧즉환명진문(即幻明眞門) ⑨용료생연문(用了生緣門) ⑩취생현법문(就生顯法門) ⑪명부생연문(冥府生緣門) ⑫삼경순진문(三境順眞門) ⑬수기식생문(隨機識生門) ⑭해인수생문(海印收生門) ⑮밀용영기문(密用靈機門) ⑯쇄탁동시문(碎啄同時門) ⑰수수수방문(隨隨收放門) ⑱권서무주문(卷舒無住門) ⑲일다자재문(一多自在門) 그러나 몽여의 말마따나 96종의 원상이 이들 19문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명쾌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안목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순지의 원상 18종을 비롯해 다양한 원상이 수록돼 전하는 지겸의 〈종문원상집〉에 보이는 특징은 기관(機關)이 아니라 일종의 상황에 따라 연출되는 제스처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위앙종의 표상현법을 방원묵계(方圓默契)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선법의 교의에 대해 수행과 교화라는 일정한 주제로 정형화시킨 동산의 편정오위(偏正五位)의 도상과는 차별이 된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④ 禪家龜鑑句(선가귀감구)



참마음을 지켜라

守本眞心第一精進 (수본진심제일정진)
본디 참마음을 지키는것 이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다.

서산 대사가 집필한 불교개론서 〈선가귀감〉은 참선을 하는 수행자들을 위해 조사들의 어록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린 책이다.

〈선가귀감〉의 구절 중 '수본진심 제일정진' 은 홍인 대사의 어록인 '본래 참마음을 지키다[守本眞心]' 를 인용한 것으로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스스로 본심이 바로 부처임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천만 가지 경론의 말씀이 본래 참마음을 지킴만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계	장	심	수	선
미	진	제	본	가
춘		일	진	귀
정				감
우				구

龜: 거북 귀, 땅이름 구
鑑: 거울 감
眞: 참 진
精: 정할 정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욕바라, 신중작법봉청39위, 욕건이,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법고춤, 괘불이운
■ 강 주 : 교무국장 성우스님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불교미술학인모집

◐ 교육지표 :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 교육과정(2년제)

1-1	1-2	2-1 2-2
• 불화기초(Ⅰ) 시왕초 등긋기	• 불화기초(Ⅱ) 보살초 등긋기 사천왕초 등긋기	불화 그리기 불화실습(Ⅰ,Ⅱ)
	• 채색 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 단청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 강 주 : 혜경스님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 공통 사항
■ 개강일시 : 2011년 3월 3일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종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 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부처님이 전하려던 메세지는 깨달음이 아니다


돈연 스님

범종은 하루 세 번 울린다. 아침 예불, 점심 마지, 저녁 예불 때. 예외가 있다. 수행자가 입적했을 때 108번을 울린다. 열반 종소리다. 삶을 깊이 되돌아보는 삶과 죽음을 벗어난 소리다. 한 생을 마감하는 장중한 느낌이 담겨 있어 순식간에 산중을 섭섭하고 엄숙하게 이끈다. 출가한 이는 너나들이 이 종소리를 들으며 시공간을 버리고 떠난다. 2010년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때 아니게 길상사 범종이 울렸다. '수행은 겸허와 청빈 그리고 엄숙함과 청정을 주춧돌로 삼는다'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사신 모습 그대로를 소리에 담아.

"집이 워낙 가난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를 해서 학비를 벌었으니까. '쟤는 나무를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석을 터놓고 한 해에 석 달은 했어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나무꾼이었어요. 10대까지는 그 별명이 참 싫었어요. 창피했는데. 20대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내 문화 재산 가운데 하나로 등록되더라고. 아이 셋을 낳았어요. 나무꾼이 아이를 둘을 낳으면 선녀가 날아가 버리는데, 셋을 낳아서 도망치지 못했어요." '메주와 첼리스트'로 널리 알려진 돈연 스님(66)을 강원도에서 만나야 제격일 텐데 서울에 있는 도완녀 신당에서 마주 앉았다. 25년 동안 수행한 학승 돈연 스님은 첼리스트 도완녀(58)와 93년 결혼한 뒤 두타산기슭에 메주공장을 차리고 신접살림을 시작해 대처승이 되어 세 아이를 얻었다. 두 딸은 여래와 문수, 아들은 보현. 모두 부처와 보살 이름이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는 일도 재미있겠다. 여자하고 산다든가 애를 낳는 일이 불결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산중을 떠나는 일은 불교수행자로서는 타락으로 봐요. '네가 나가서 뭘 하든지 상관이 없이 여기 나가면 끝이야!' 맞지 않는 말이죠."

돈연 스님과 법정 스님 인연은 40년 가까이 된다. 처음엔 그저 먼발치서 종단 어른으로 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1973년도에 돈연 스님이 역경원 연수생으로 들어가면서 법정 스님을 뫼시고 살게 되었다. "그때 연수생을 강사급 가운데서 뽑았어요. 한 10명쯤 뽑으려고 했는데, 국어점수가 된 사람이 다섯 명 뿐이 안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국어점수가 저만 60점이 넘고 나머지는 다 낙제였답니다. 운허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점수가 좀 괜찮은 스님들을 가려서 법정 스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과락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법정 스님이 국어를 담당하시고 운허 스님이 경전, 운기 스님이 〈화엄경〉 그리고 각성 스님, 월운 스님, 홍정식 교수 그밖에 동국대 교수들이 강의를 맡았어요. 학생이 다섯 사람이었는데 선생이 여덟 분이었습니다. 2년 과정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역경원 간사를 하셨어요. 교무처장 비슷한 직책이죠." 스승 여덟에 학생이 다섯, 일대일도 넘으니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을 목숨을 주고받는 탄탄한 도제 교육이다. 돈연 스님은 그 뒤로 79년도까지 법정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법정 스님은 71년에 〈영혼의 모음〉을 76년에 〈무소유〉를 냈다. "사실 70년 대 후반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라도 돈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영혼의 모음〉을 처음 낸 출판사에서 인세를 주지 않았어요. 책은 팔렸다는데 우리가 변두리 서점들 가서 책을 보면 인지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걷어다가 항의를 하곤 했죠. 제가 그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여러 번 옮겼어요. 그리고 꽤 얼마 있다가 와다나베 쇼코가 지은 〈불타 석가모니〉를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때는 세 권으로 나왔는데, 그때 받은 원고료가 18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돈으로 불일암을 지었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번 만났던 사촌동생 박성직 선생이 72년 사업체를 내고 나서 몹시 어려워 스님께 어렵사리 돈 부탁을 드렸을 때 '출가수행자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말씀이 떠올랐다.

역경원 생활이 바탕이 되어 한 평생을 티베트 장경, 한문 장경, 빨리어 장경을 두루 읽고 번역하는데 바치고 있는 돈연 스님. "역경원에서 이제까지 책이 한 400권쯤 나왔잖아요? 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책을 제대로 내기 시작한 때가 60년대부터였어요. 종단에서 돈이 없으니까 봉은사를 내 드렸죠. 그 때 봉은사는 끼니가 어려웠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데가 봉은사였어요. 운허 스님께서 5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들한테 꾸준히 탄원서를 올렸어요. 정부도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하다가 60몇 년도든가? 하도 스님이 정성스럽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니까 이후락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뒤로 해마다 700만원씩 보조를 받았어요. 그 때 30평짜리 AID아파트가 350만원 할 때니까. 제법 큰돈이었죠. 그 돈을 받아서 번역해서 책을 냈는데 처음 계약했던 출판사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원고를 가져다주면 책을 팔고 나서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한 3년 동안 돈만 날리고. 그 뒤로부터는 판매부를 직접 둬 가지고 역경원을 만들 때 사무실은 동대 꺼 쓰고. 돈은 700만원씩 받으니까 돈이 좀 모였어요. 동국역경원이 동대 소속처럼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경 사업 기초는 발이 닳도록 애를 쓰신 운허 스님과 법정 스님, 그리고 돈연 스님을 비롯한 역경위원들이 모두 함께 흘린 땀이 모여 이룬 역사이다. 돈이 들어오니까 관리가 쉽지 않았다. 생각 끝에 운허 스님께서 법정 스님한테 실무를 좀 보라고 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돈연 수좌는 경영을 좀 할 줄 아니까 맡으라고 했다. "당신은 맡지 않고 나보고 맡으라는데 맡을 수 있나요? 저도 거의 25년 동안 살면서 주지 한 번하지 않고 돈 만지는 소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 스승에 그 제자지. 그래서 '스님이 하시면 따르는 게 마땅하지만, 스님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제가 왜 합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싫은 일, 궂은 일은 하지 않으려는 지식승려들 병폐가 거기 있어요. 현실에 물들려 하지 않고 살려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현장에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의 애환을 모르잖아요. '진속불이(眞俗不二)라. 진과 속이 둘이 아니다. 세속과 출가가 둘이 아니다'고 하지만 말뿐이죠. 역경원에 근무하는 분들 가운데 승려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수행은 닦음과 행동 결합 닦으면 저절로 행동으로

"수행이라는 게 뭐냐? 닦음과 행동을 합친 말이죠. 닦으면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닦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수행은 안팎을 닦는 일입니다. 안으로 마음 안정을 찾고 밖으로 이 사회구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수행자는 안[內] 만 닦고 있어요. 바깥은 죽으나 사나 나 몰라라 하는 절름발이 수행이에요. '그냥 산 속에 앉아서 머리 깎고 앉아서 가져다주는 밥 먹고 그런 건 누가 못하냐?'는 내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 수입 가운데 많은 부분을 내놓아 끊임없이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굳이 승려들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잘 굴러 가는데. 그러니까 다 내놓자. 사찰 경영 우리가 하지 말자. 왜 우리가 돈 만져야 하냐? 절 살림은 신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돈 내는 사람이 신도들이잖아요. 정 재가불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살림살이를 잘하는 여자들, 비구니들한테 맡기자. 우리는 평생을 하루 세끼 얻어먹고 그냥 먹물 옷 정도 입고, 사치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만 하고, 신도들은 정신 수행에 힘을 쏟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맡자. 재가자 가운데는 은행가도 있고,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느냐? 우리보다 살림을 더 잘할 거다."

돈연 스님도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전에는 중은 산중에 살아야 한다.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어있었는데,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혼란이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과연 우리 집단은 뭐하고 있느냐하는 자괴심이 들었다. '불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대로 끝내기는 섭섭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다시 정립을 해보자' 마음먹고 인도로 갔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사찰스님 20% 할인)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훨훨 벗어 버렸듯 법정 스님에 대한 회고도 그랬다.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은 없었다. 승복을 벗어던지고 만난 수많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천착이 스님을 더 자유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에게서 맡아지는 냄새는 나를 가볍게 했다. 모든 것을 놔 버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정말 존재가 자유로와 질 때 행복해진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 1년 동안 무려 2000km를 걸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깨달으신 부다가야, 초전 법륜지, 처음 신도를 받아들인 바이샬리, 그리고 돌아가신 쿠시나가라를 비롯한 십대 성지를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닌 까닭은 '부처님도 걸어 다녔을 테니 나도 걷자'는 생각에서였다. 걸어서 성지에 닿으면 첫째 날은 동쪽으로 12시까지 걸어간다. 12시가 되면 멈춰 거기서 다행히 얻어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렇지 못하면 빈 속을 달래면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다. 보통 오전보다 오후 걸음이 늦다. 빨리 걸어야 오전에 걸은 거리 3분의 2쯤 걷는다. 그러다보니 늘 밤에 별을 보면서 걷게 된다. 이튿날은 남쪽, 그 이튿날은 서쪽 그리고 그 다음엔 북쪽으로 나흘을 걷고 나면, 사흘은 쉬어야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걸었다.

가시덤불을 만나면 만난 대로
맹수를 만나면 만난 대로

"한 순례자가 스승이 태어나고 깨닫고 설법하고 돌아가신 길을 따라 무려 이천 킬로미터를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걷는다. 늪에 빠지면 코끼리가 길을 안내하고, 가시덤불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맹수를 만나면 만나는 대로, 며칠을 걸어도 집 한 채 없는 황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집을 만나면 차파티 한 조각으로 목숨을 잇고.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진정 사람다운 참 사람, 부처님이 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걸으며 진리에 목이 마른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나누셨다" 도완녀 님이 쓴 책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아니더라〉 한 대목이다.

"걷고 또 걸으면서 느껴보니까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꾸미려든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불교는 깨달음을 으뜸 목표로 하잖아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진정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깨달음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는 일이 진짜 불교 모습이었어요. 치열한 삶이죠. 거기서 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등급화, 계급화 시켰어요. 그래서 승려집단만이 할 수 있다는 도그마에 빠졌어요" 걸으면서 '당신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려했는가? 또 준 게 있기는 한가?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부처님한테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데, 부처님이 내게 답을 해줘야할 까닭이 있는가?'를 묻고 또 물었다. 나중에는 '내가 25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한국까지 책임지느냐? 그건 너희들 일이니 네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풀어야할 문제다' 그런 답이 저절로 나왔다.

"내가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무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내 옛날 동료들이 뭘 못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마치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국방의무를 행하는 군인처럼"

틀을 벗어던진 사람은 자유롭다.

돈연 스님은 담담하게 말씀한다. "처칠을 알려면 처칠을 읽어야 하고, 일본을 알려면 일본을 읽어야 하듯, 불교는 부처님이 만든 종교이니 불교를 알려면 석가모니 부처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라는 사람 삶을 훑어보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첫 걸음이에요. 가장 손쉬운 일이죠.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그리고 끝내 무엇을 얻어 이웃과 함께 했는가를 헤아려야 해요" 펄펄 살아 숨 쉬는 사람, 석가모니를 만나지 못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불자가 아니라는 준엄한 말씀이다.

"내 이웃이 바로 부처이며 예수님이며 천주님입니다. 이 모두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들이지요. 불교를 배우는 일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이며, 자기를 배우는 일은 자신을 텅 비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개체인 내가 전체로 퍼져나가는 일입니다. 깨달음이 이웃에 닿지 못하면 그 깨달음은 중생을 잃은 깨달음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 완성이자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해요." 법정 스님 말씀이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따귀를 '철썩'

새학기를 맞은 교정은 활기가 넘친다. 특히 생기발랄한 모습에서 신입생의 환희를 느낀다. 기약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나뭇가지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살아있는 것들의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봄이 오는 대지에는 삶의 환희와 찬미가 넘쳐난다. 보드기에 움트는 가지를 보며 겨우내 숲에서 난 산새의 날개짓이 육(育)지니의 설익은 몸짓마냥 푸득이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만끽한다.

남산의 산행길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에 의지해 중앙의 노란 길을 따라 조심스레 걷고 있다. 그들은 봄이 오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바람으로 느낄까. 아니면 봄내음으로 느낄까. 헬렌 켈러는 봄이 되면 나뭇가지를 잡고 손끝으로 봄을 느낀다고 했다. 봄을 느끼는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마 근기의 문제로 귀결될 직 하다.

수행에는 근기라는 말이 쓰이곤 한다. 수행자의 용량 단위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분류한다. 도를 논하면 상근기는 열심히 닦고, 중근기는 반신반의 하며, 하근기는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고 부정하며 웃어넘긴다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각자의 근기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봄을 느끼는 유형 근기따라 다르듯
교육체벌 '사랑의 매' '폭력' 판단

근기(根機)는 범어로 Indriya라 한다. '거대한 힘을 지닌 인드라신의 힘과 설득력과 자질'을 의미한다.

〈벽암록〉 제11칙의 내용이다. 어느 날 황벽선사는 납자들에게 "그대들은 모두 술지게미에나 취해 다니는 놈들이다. 지금처럼 할 일없이 이 절 저 절로 공밥이나 축내고 다니니 그래가지고 어찌 오늘의 나 같은 경지에 이르겠느냐?" 이 때 한 납자가 불쑥 나와 따졌다. "하지만 도처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사가 많은데 그들은 뭡니까?" 그러자 황벽 선사는 "선이 없다는 게 아니다. 선은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 다만 없는 건 올바른 스승 뿐이다"고 대답했다.

당나라 선종 황제(宣宗皇帝)는 재위 기간이 847~859년이다. 선종 황제를 대중천자(大中天子)라고 한다. 그는 한 때 출가해 향엄 선사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 염관제안국사의 회상에 있었다. 당시 황벽 선사도 그 절에 수좌(首座)로 있었다. 얘기는 이렇다. 어느 날 황벽이 정성스레 예배하고 있었다. 그 때 대중(大中)이 와서 물었다. "부처에게서 찾지 않고, 법에서 찾지 않고, 예배하여 과연 무엇을 찾을게 있소!" 그러자 황벽은 "부처에게서 찾지 않고, 법에서 찾지 않고, 대중에게서 찾지 않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절한다"고 대답했다. 대중이 "절은 해서 무엇하오. 아무것도 찾지 않으면서 절만 하다니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고 들이댔다. 그 때 황벽은 벌떡 일어나, 대중의 따귀를 철썩 때렸다. 대중은 "이런 난폭한 자가!" 하고 얼이 빠졌다. 황벽은 "이런 경우, 난폭하다느니 친절하다느니를 따질 때가 못 돼" 하면서 다시 한 대 철썩 후려쳤다.

내리 3번 호되게 뺨을 맞은 대중은 그 후 환속해 선종 황제가 되었다. 그 때 뺨을 때려 준 황벽에게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추행사문(醜行沙門)이라는 호를 하사했다. '난폭한 승려'라는 말이다.

선종은 상근기임이 분명하다. 그가 만약 하근기였더라면 지난 날 염관 국사의 도량에서 뺨 맞은 앙갚음을 했을 것이다. 지난날에 괘념치 않고 추행사문이라고 호를 내리는 여유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교육현장에는 체벌문제가 핫 이슈가 되어 있다. 전면체벌금지라는 한 집단의 주장에 맞서 어느 선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누그리지 않는다. 선생님들의 입장은 딱 할 뿐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는 반문이다. 체벌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우선 '사랑의 매'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매의 길이, 위 아래 쪽 지름을 한정하는 것이다. 이런 류의 사랑의 체벌을 받은 학생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사랑의 매의 고마움을 충분히 알 것이다. 대중천자의 마음같이.



동국대 선학과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 OK!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노인정 경노당,한의원, 산후조리원,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겨서 일단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2)

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확실히 개운치 않은 느낌이긴 했다. 리시는 아주 먼 옛날인 금의 시대의 일곱 스승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전했던 그들은 후세의 인간들을 위하여 예언을 남겼다. 금의 시대에는 인간도 신들만큼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예언은 그때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다만 당시는 아직 문자가 없던 시절이라 구전으로 전승된 몇몇 예언들이 지금처럼 고대 문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 문헌에서 예언한 것들이 어긋나는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이유로 예언서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에서는 현명한 스승, 즉 구루라고 불리는 자만이 소중히 보관하여 후손에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카필라 마을도 리시의 그 예언서 중 하나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 중의 하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를 맞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마을의 멸운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앞당긴다고 해석했던 그 내용말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 지역에선 예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비를 내려 생명의 씨앗을 틔우게 되는 것이라는 탄생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글쎄. 난 모르겠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난 원래 예언이나 운명 같은 건 믿지를 않네. 이 예언서는 그저 구루에게서 구루로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상징 같은 것뿐 이지."

유독 '비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유리 영감이었다. 뜨끔해진 촌장은 괜히 시선을 돌리며 딴청을 부렸다. 잠시 후, 결국 그는 인사만 남긴 채 황망히 유리 영감의 오두막을 나섰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리 영감이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촌장은 마야를 사랑했다. 자신과 결혼할 여자는 그녀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초를 캐러갔던 마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정신없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누군가 마을 앞에 쓰러져 있던 마야를 데리고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때 이미, 마야는 무니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는 마야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괴로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자신을 임신 시킨 남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그녀를 안쓰러워하고 도와주려 애썼지만, 그는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결국 죽고 싶어질 정도로 괴로운 나머지 유리 영감의 오두막을 찾았다. 독약을 훔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독약 대신 바로 그 예언서였던 것이다. 모든 덕목들 중 화목과 조화를 가장 중히 여기는 마을의 풍속 상, 이제까지 혼외의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분명 무니가 최초였다. 자신이 알기로는 그랬다. 그러니까 무니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 즉 예언서에 나오는 '비를 맞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 후로 촌장은 아무래도 무니를 좋아할 수 없었다. 마야 역시 꺼려지긴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쌍둥이를 한 번에 다 출산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 아이를 임신한 채 만삭의 몸으로 팔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마을의 공동 작업에도 얼굴을 내미는 일이 없었다. 그녀를 걱정한 마을 사람들의 만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촌장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히려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마야를 아끼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언서의 내용을 말해주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 그 예언은 틀렸거나, 혹은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할 내용이었다. 그는 무니의 죽음으로 기분이 개운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 촌장은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누웠던 마야가 팔 년 만에 쌍둥이 중 남은 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번에도 마야의 출산을 도운 것은 유리 영감이었다. 태어난 아기는 정말 죽은 무니가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젖을 물리는 마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에 유리 영감의 마음도 아파왔다. 오늘은 죽은 무니의 생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쌍둥이는 쌍둥이인 모양이다. 생일이 같은 걸 보니 말이다."

마야는 그렁한 눈빛으로 유리 영감에게 뭐라고 대꾸를 하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깜짝 놀란 마야는 계속 입을 벙긋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렸다. 아기도 그런 엄마의 기분을 느낀 것인지 젖을 먹다 말고 울기 시작했다. 역시 깜짝 놀란 유리 영감이 마야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침묵 속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삽화 · 김홍인

유리 영감은 마야에게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니의 아버지인 그 알 수 없는 그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일까. 자신과 절친했던 마야의 아버지 아유르는 잠부주의 서쪽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약사였다. 그는 일찍이 부인을 잃고 어린 딸 마야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안타깝게도 실족사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홀로 남은 마야를 힘을 모아 길러냈다. 그런데 그런 마야가 아버지와 같은 약사가 되겠다며 누프르산으로 약초채집을 처음 나간 날, 사라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밤을 새가며 근처 모든 산을 뒤졌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애타게 찾던 마야가 마을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다섯 달 후였다. 이미 아이를 가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무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마야가 기억하는 것은 산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신을 어떤 노인이 간호해주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까지 알려준 게 다라는 것이다. 그 외에 그녀의 기억은 약초채집을 처음 나간 날에 멈춰있었다. 사람들은 기억을 잃은 채, 아이까지 가진 그녀의 처지를 가엽게 여겼지만 정작 마야는 그렇지 않았다. 마을에 돌아와 무니를 낳아 기르면서 한결 같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냈다. 유리 영감도 마야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니를 출산한 후에도 마야의 배가 꺼지지 않은 채 임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필시 쌍둥이일 것이라 생각은 하였지만, 너무나 기이했다. 그는 그제야 다시 예언서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늘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다.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기고 나니 더욱 그랬다.

한편, 마야의 출산 때문에 유리 영감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집에서도 아띠라는 말이 새끼를 낳았다. 수컷의 흰 망아지였다. 난다는 무니와 새끼의 성별을 두고 내기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걸 맞춘 사람이 그 망아지를 가지는 내기였다. 할아버지도 기꺼이 허락해, 무니와 난다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하지만 내기에서 이긴 무니는 이제 없다. 난다는 슬프기만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망아지가 네 발을 땅에 디디고 서더니, 어미의 젖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기운이 났다. 무니는 자신이 이기게 되면 망아지 이름을 '칸타카'라고 짓겠다고 말했었다. 난다는 그 이름을 조그맣게 발음해 보았다. 젖을 먹던 망아지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귀를 쫑긋했다. 눈물이 고여 있던 난다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다.

이틀이 지났다. 난다는 마구간에서 칸타카를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유리 영감은 마야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는 집에 돌아와 쉬는 중이었다. 마야가 말을 잃은 것은 슬픔과 충격 때문인 것 같으니 일단은 두고 보기로 한 것이다. 그때 누군가 유리 영감을 급하게 찾는 소리가 들렸다. 마야와 아이를 돌봐 달라 부탁해놓은 이웃집 아낙이었다.

"무슨 일인가?"

"아이구.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겨서. 일단 가셔서 직접 보셔야할 거 같아요."

무척 놀란 그 얼굴에는 어렴풋이 두려움도 드러나 있었다. 마야의 집으로 향해 가는 길, 이웃이 들려준 이야기는 팔 년만의 출산이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유리 영감의 부탁을 받고 마야의 식사를 챙겨주러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글쎄, 갓난쟁이는 온 데 간 데 없고. 그 자리에 무니가 떡하니 누워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지고 갔던 음식도 다 엎어 버리고……."

"확실히 봤다는 말이냐?"

"아이구. 그럼요. 눈을 떴다 감았다, 비볐다 부볐다, 했지만 그건 확실히 무니였어요."

"마야는?"

"아니 그게, 그런 와중에도 아주 푹 자고 있지 뭐에요? 처음엔 죽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원래도 과장이 많고 호들갑스럽긴 했지만, 헛것을 보거나 말을 꾸며내는 여자는 아니었다. 유리 영감은 좀 더 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마야의 집에 당도한 유리 영감이 급히 문을 열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은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다. 침상에서 다리를 모으고 쪼그려 앉아있던 한 소년이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분명 무니였다.

"아니, 무니 네가 어떻게 해서……?"

유리 영감은 미처 말을 다 맺지도 못했다. 아낙은 당황하는 그의 옆얼굴을 '어때요? 내 말이 맞지요!' 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 과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 •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련 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1.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승무, 사주신주, 구궁법, 조상영가 찾는법
2. 전 문 의 식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금	5~6시	
3. 바 라 작법무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다게작법,삼귀의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목 • 금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되어 있는 바라, 작법무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영 축 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해동사)

연락처 :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

항상 즐거운 세상 열어 주시는 희망의 부처님 계시네

금산사 (상)

8C 진표 율사 중창, '호남 4경' 속해
혜덕·처영 스님 등 여러 고승 활동


금산사 미륵전과 방등계단


보물 제28호인 금산사 당간지주

"여보님. 이번 주말에 절집기행 갈까요?"

"절집? 그런 말도 있어?" "그럼요. 네이버에서 검색 해 봐요. 국어사전에 '절을 집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명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절집이란 말이 들어간 책 제목도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절이면 절이고 집이면 집이지, 절집은 좀 속된 표현 아닐까?"

"속되다기보다는 좀 더 정감 있는 표현 같아요. 절, 사찰, 사원 같은 말엔 왠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이 묻어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군. 어차피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니까. 그래, 이번 주말엔 어디로 갈 건데?"

지혜장은 주말 절집기행의 목적지를 금산사로 정하고 책과 인터넷을 뒤지며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남편 나팔수씨는 언제나 그렇듯 "마눌님이 알아서 하셔"하는 태도. 그렇지만 부부는 주말을 기다리며 열심히 한 주를 살았다.

토요일 새벽 5시, 부부는 간단한 여장을 챙기고 시동을 걸었다. 모질던 겨울 추위는 한발 물러서고 며칠 포근했는데 부부의 여행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그렇다고 계획을 접을 부부는 아니지만.

"금산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안전운전 하시면 세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 난폭운전으론 두 시간이면 되겠군. 하하하."

지혜장의 생각대로 세 시간여 만에 금산사에 도착했다.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모악산 줄기 너머에서 환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개울물은 아직 얼어 있고 음지에는 눈이 쌓여 있지만 꼼지락거리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부부는 찻길 옆에 만들어진 도보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금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륵도량이야. 미륵부처님, 들어 봤지?"

"당근이지. 미래의 부처님 아냐? 미래의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러 오시는 부처님 말이야. 그래서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나 천지개벽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미륵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 궁예만 해도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자칭하면서 민심을 얻어 나라를 세웠었지. 그 기반 위에서 왕건이 고려를 세울 수 있었고. 근현대에 생긴 어느 신흥종교도 모악산과 금산사 그리고 미륵신앙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

"와, 우리 여보님. 오늘은 예습을 좀 하셨나?"

"이거야. 기본이지."

미륵신앙은 말세관(末世觀)을 토대로 형성됐다. 선사시대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하는 짓 보면 말세는 말세야"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듯,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가장 어렵고 말기적 징후를 보인다고 느끼는 풍조가 있다. 그러한 생각은 개인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조류(潮流)를 형성하고 종교나 문화 예술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은 현재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영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륵신앙은 희망의 신앙이고 미륵불은 희망의 부처님이다. 불교는 미륵불을 통해 미래 세계의 중생들이 구제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경전은 '미륵삼부경'에 해당하는 〈하생경〉 〈상생경〉 〈성불경〉이며 이에는 50여 종의 경전이 포함되어 미륵신앙을 설명하고 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 이후 56억 만 년이 지난 뒤에 염부제(閻浮提: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에 하생하는데 이때의 염부제는 말법시대가 되어있다. 이 오탁(五濁)의 시대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정법으로 민중을 다스려 세상을 평화롭고 온화하게 변화시킨다. 이 때 미륵불이 도솔천에서 하생하여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출가 수행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서 성불하고 3회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금산사가 미륵신앙의 대표적인 도량이 된 이유는 뭐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된 '견훤성문'을 지나 '모악산 금산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 앞에 이르러 나팔수씨가 물었다.

"금산사는 8세기 중엽에 진표 율사에 의해 크게 중건되었는데, 진표 율사는 출가 후 철저한 참회 수행을 하여 지장보살과 미륵불에게 계를 받았어. 미륵불에게 계와 법을 이어 받은 진표 율사의 영향으로 이곳이 미륵도량이 된 것이지. 미륵신앙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널리 퍼진 상태였고 신라하대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동안의 혼란기에는 더욱 많은 민중들이 숭앙하지 않았겠어?"

"아, 저기 안내판이 있네. 절의 역사는 한 번 읽고 들어가야지?"

일주문 50미터 쯤 위에 절의 약도와 연혁이 적힌 안내각이 서 있었다.

금산사.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되어 신라 혜공왕 2년 진표 율사가 금당에 미륵장육상을 모시고 도량을 중창하여 법상종을 열어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으로 삼았다. 후백제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하여 유폐되었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고려 문종 33년(1079) 혜덕 왕사가 대사구, 봉천원, 광교원 등을 설치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다.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시에는 처영뇌묵 대사 등 1000여 승병들의 훈련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 후 정유재란 시 80여 동의 전각과 산내 암자가 왜군의 손에 의해 전소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선조 34년(1601) 수문 대사가 10여명의 도반들과 함께 35년간에 걸쳐 복원불사를 추진하여 대사구 지역만 일부 재건하였다. 이조 말엽에는 환성지안 대사가 수많은 스님들이 운집한 가운데 화엄산림법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용명 스님의 순교 등 수 많은 고승대덕 스님들이 주석하던 절이다.

한국불교의 정화와 중흥을 위해 진력하던 월주 화상이 1961년 주지로 부임한 후 도영 도법 등 도제들과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대적광전, 미륵전, 대장전, 하서전, 방등계단, 삼성각, 적멸보궁 등을 중건 중수하고 보제루, 일주문, 상서전, 서래선원, 범종각, 종무소, 향적당, 보현당, 설법전, 만월당, 성보박물관, 적묵당, 나한전, 조사전 등을 새로 건립하여 대사구를 완전 복원하고 확장하였다.

1986년 원인 모를 화재로 대적광전이 소실되었으나 월주 화상의 원력으로 도제들과 사부대중의 협력을 받아 복원하였고 전주 시내에 전북불교회관을 건립하여 전북지역의 포교를 맡고 있는 호남 제일의 수도와 교화중심 도량으로 그 면모를 갖추어 미륵십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연혁이 잘 정리 됐네요. 여보님 이제 금산사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글쎄올시다. 워낙 유서 깊은 절이라 하루 둘러보는 것으로는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을 것 같네."

"그래도 수박을 구경도 못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금산사의 봄 풍경은 '호남4경'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거든."

예로부터 손꼽아 온 호남4경이란 금산사의 봄 경치, 변산반도의 여름경치, 내장사의 가을단풍, 백양사의 겨울 설경을 말하는 것이다. 나팔수 씨는 봄 경치를 제대로 보려면 좀 더 있다가 왔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

부부는 개울을 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쪽의 돌다리를 건넜다. 이제 절의 중심인 대사구 안쪽으로 들어선 것이다. 가장 먼저 통과하는 문은 금강문(金剛門). 금강문 안의 왼쪽에는 코끼리 100마리보다 힘이 세다는 나라연금강이 칼을 치켜들고 입을 벌린 채 눈을 부라리고 있다. 한 손은 앞에 선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너 까불지 마" 하는 듯하다. 그 옆에는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절 안쪽을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밀적금강이 오른손에 든 칼을 머리위로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은 굳게 다문 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옆에는 문수동자가 사자를 타고 앉아 있는데 매우 단정한 모습이다.

어느 절에서건 나라연금강은 공격 자세이고 밀적금강은 방어 자세다. 입을 벌리고 다문 것도 같다. 그것은 나라연이 처음을, 밀적이 끝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역사에 의해 발심과 회향이 함께 상징 되는 것이다.

천왕문과 당간지주(보물 제28호)를 살펴 본 부부는 보제루 아래를 통해 절의 중심인 대적광전과 미륵전의 앞마당에 올라섰다. '개산천사백주년기념관'이라는 커다란 현판이 걸린 보제루 앞에 올라선 부부는 자신들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 정면의 대적광전을 향해 세 번 절을 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미륵전을 향해 세 번 절했다. 미륵전 뒤쪽 모악산 능선에서 찬란한 해살이 부챗살 모양으로 도량을 비추고 있다. 꿈결인 것만 같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인연을 등지지 않음이 나를 지키는 길”



김기협 박사, 시병일기 ‘아흔개의 봄’



한 역사학자가 불심 깊은 아흔의 노모를 간병한 이야기를 모아 〈아흔 개의 봄〉(서해문집 刊)을 펴냈다. 역사학자 김기협 박사(前 계명대 교수)는 2007년 쓰러진 어머니를 처음 모시게 됐다. 주변에서는 김 박사를 대단한 효자로 여겼다. 김 박사는 자식으로서 도리일 뿐,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식들 중 가장 마음이 어두웠다는 그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머니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기뻤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

“튜브피딩으로 연명하며 의식도 미약한 채로 무기력하게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을 얽매고 있던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사그러들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저 기쁜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시병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김 박사는 2년간의 시병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괴로움도 함께 나눈다는 사실, 운명이 주는 괴로움은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장 통렬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불교에서 효행은 만가지 선행(萬善)의 근본이며, 부모야말로 좋은 복전(福田)이라 했다.

부처님은 〈부모은중경〉에서 “천지의 귀신을 다 섬긴다 해도 부모에 효도함만 못하다”라고 설했다. “총명하고 지혜를 가진 자가 있어 생사의 피안에 도달하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로서 섬기는데서 오는 공덕은 일생보처보살이 받는 공덕과 같다”고도 설했다. 부모를 섬김이 불보살에 공양함과 다르지 않음이요, 이고득락(離苦得樂)하려면 부모에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함을 강조했다.

어머니 이남덕 여사는 이화여전을 나와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를 지낸 지성인이기도 했지만, 노년의 상당기간을 공주 갑사 대자암에서 지낸 이력이 말해주듯 여느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신심 깊은 보살이었다. 김기협 박사가 어머니와의 인연을 통해 2년의 시병일기를 쓰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아흔 개의 봄’을 통해 그가 소소하게 읊은 사모곡은 무명을 밝히는 목탁이요, 불효를 꾸짖는 죽비에 다름 아니다. 팔만대장경의 또 다른 새김이다.

김 박사는 “운명에 대한 원망이 아끼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기 쉬운 것”이라며 “어떤 고통 앞에서도 주어진 인연을 등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기협 박사는 책 발간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오늘도 사모곡을 이어가고 있다. orunkim.tistory.com

아흔개의 봄 | 김기협 지음 | 서해문집 | 1만2900원

조동섭 기자



김기협 박사와 어머니 이상덕 여사의 모습.

무심코 떠난 순례길에서 ‘참된 나’를 만나다



제주 원당봉 불탑사의 오층석탑.

정찬주 소설가의 전라도·제주도 작은 절들의 인연담

노악산 남장사의 소박한 법당은 자기 내면에 자리한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 마룻바닥에 앉아보라고 권하는 듯하다. 죽은 지아비를 닮은 수행자를 사모하다 결국 병들어 죽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전하는 모악산 용천사는 절보다 여인이 꽃으로 환생했다는 꽃무릇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욕심도 사랑도 미움도 다 버린 무욕(無慾)의 얼굴을 한 영구산 운주사 ‘거지부처’는 저절로 그 앞에서 발을 멈추고 합장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을 지녔다.

책은 소설가 정찬주가 전라도와 제주도의 작은 절들을 인연 따라 조우한 순례 기행문이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가 자신 스스로에게 추천한 절들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 때론 범종각 앞에 서서 명상에 잠기고, 짧지만 범종소리에 온갖 잡념이 사라짐을 느낀다. 선방산 지보사 배롱나무 꽃무더기 속에 자리한 석탑에서는 무위(無爲)를 발견하고, 비슬산 유가사에서는 바람으로 마음을 읽는 것이 풍류임을 배운다.

저자는 이 같은 여정들이 자신을 맑힐 예수재(豫修齋)란 생각에 법당에 들어 절하는 것이 더욱 절절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 절은 절하는 곳이구나’라는 단순한 깨달음도 얻는다.

어느 선사는 ‘도를 모르고서 발을 옮긴들 어찌 길을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결국 참된 나와 만나는 행복의 여정은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 저자는 작은 절을 찾아가는 길이 내면에 자리한 ‘참된 나’를 만나는 구도의 여정임을 알게 된다.

묵은 절의 주름진 기둥, 칠이 벗겨진 단청, 고승의 절창이 남아 있는 산 속 작은 절에서 저자는 홀연히 깨닫는다. 불상은 우상이 아닌 순간적이나마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씻고 홀연히 만나 미소 짓는 우리 내면의 자화상임을,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절은 절하는 곳이다 | 정찬주 지음 | 이랑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 2~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3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비구, 법정	근승랑	동아일보사
8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심재원	정우서적
9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희	불광출판사
10	선림보훈 주해	이동형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
불교명상의 근본취지를 밝혀



붓다와 명상 | 임승택 지음 | 민족사 | 1만2000원

하버드 의과대 크리스토퍼 거머(Christopher K. Germer) 교수는 “불교명상은 그 어떤 치료방법보다 불안·우울증·공황장애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가장 현대적이고 두드러진 형태의 행동 치료로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확산, 집값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사회적 불안감이 커질수록 현대인들은 원인모를 질병과 혼란, 스트레스, 우울증에 몸살을 앓는다. 특히 스트레스는 사람을 극단적인 충동과 자살 등으로 몰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됐다.

서양에서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학과 심리치료를 불교명상과 결합시켜 활용하고 있다. 불교명상은 인지과학과 뇌과학 발달로 인해 그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속속 증명되면서 점차 유행처럼 번져가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철학과 임승택 교수는 서구심리학이 주도하는 명상치료에 무작정 동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심리치료사들은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치료 효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명상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리학자·심리치료사들이 명상의 기능적·조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저자는 붓다로부터 명상의 유래와 갈래, 나아가 명상이 지닐 수 있는 교리적·철학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붓다는 스트레스처럼 실체가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래 모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붓다가 제시한 ‘잘 쉬는 방법’은 편견과 독선을 쉬게 한다는 의미다. 결국 붓다가 제시한 명상은 서양의 심리치료의 기능적 측면을 뛰어넘어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을 극복케 해 즐거움을 얻도록 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 이후에는 내면의 감정과 충동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음식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듯,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저자는 불교명상 수행법 중에서도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연기법을 설명했다. 특히 저자는 초기불교 경전인 〈니까야〉에 근거해 자신이 경험했던 명상 체험 사례 등을 통해 초보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 명상의 부작용과 사이비 명상의 구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 불조정맥 〉

중,영,한 3개국어판!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 화두/Hwadu 〉

영,중,한 3개국어판!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社團法人 韓國佛教淨土宗
정토불교대학 개강
2011년 1기
불교대학 학생모집

◐ 모집과정 : 재가불자, 법사 및 승려
◐ 교육과목 : 기초교리 및 경전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학생 수시 모집)

종도 모집 : 법납이 15년 이상 되신 스님들은 임원직(심사후)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
문 의 : 032) 867-2694, 543-2693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5-12 (석목법조빌딩701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백지묵서 영가 현각 대사 증도가

“사경은 나에게 딱 맞는 수행법”

허유지 작가, 3월 16~23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두 번째 사경전 열어



수행은 깨달음의 씨앗을 찾아내고 삶의 비밀을 꽃피우는 열쇠이다. 일찍이 불교 수행의 한 방법으로 자리해 온 사경은 동시에 불교를 꽃피운 문화예술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경작품은 몸 · 마음 · 도구의 청정함을 기본으로, 삿된 욕망과 성냄, 어리석음을 여읜 경지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신만 한 데 모은 수행의 결과물이다.

“사경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행법”이라 말하는 허유지 작가는 최근 자신의 수행 결과물들인 사경작품을 통해 2번째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3월 16~23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2010년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첫 개인전을 가졌던 허유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보다 다양하고 현대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등 경전사경을 비롯해, 25년간 갈고 닦았던 서예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들과 민화작품 등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화엄경 약찬게’ ‘법화경약찬게’ 등 일반 사찰에서 많이 독송하는 게송과 선사들의 말씀을 현대미가 가미된 창작품들로 탄생시켰다. 사경작품들은 묵서, 주묵, 경면주사, 은니, 금니 등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을 통해 한문에서 한글사경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허유지 작가의 전통 사경작품은 한글과 한문 등 여러 서체를 두루 섭렵한 공력이 돋보이다. 품격 있는 서체와 불교의 깊은 신앙심을 경전과 일체화시켜, 수행의 경지와 사경예술의 진면목을 작품에 녹여내고 있다.

6년 전, 단지 〈금강경〉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우연히 사경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허유지 작가는 “사경을 하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고 말한다. 참선할 때는 잡생각이 많이 들지만, 사경을 하면서는 오로지 점획 하나하나에만 집중해 잡념이 침투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사경은 점획을 구성하는 글씨의 붓털 하나에도 기운이 배어야 하기 때문에 느림의 미학이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때문에 붓끝 털이 하나라도 제자리에 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가면, 글씨가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천천히 빠르지 않게 써 내려간 글은 곧 수행이 된다.

허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사경이 하나의 수행이고 공덕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사경이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 작가는 “앞으로 세밀한 변상도를 위주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작업할 계획”이라며 “한 점을 하더라도 난이도 있는 작품을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안평대원군 글씨 한국서 보게 되나

정병국 장관 발언에
헨더슨 컬렉션 내한 기대

해외로 반출 문화재 중 최고의 도자기 컬렉션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美 ‘헨더슨 컬렉션’ 국내전시가 추진 중이다.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은 “헨더슨 컬렉션 국내 전시를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헨더슨 컬렉션의 한국 반환 운동은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가 2006년부터 진행해왔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방문단이 2009년 하버드대학 아서세클러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헨더슨 컬렉션의 한국전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헨더슨 컬렉션’은 194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7년 동안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문정관 등으로 근무하던 그레고리 헨더슨(1922~1988)이 수집 · 해외 반출한 도자기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헨더슨이 한국에 재직하면서 수집하거나 한국의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헨더슨은 한대선이란 한국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한국문화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문화재 반출범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헨더슨은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리〉에 브라운 박사도 풍자되기도 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재정으로 문화재 해외반출이 금지됐으나 헨더슨은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아무 제약 없이 문화재를 반출했다. 그의 사후 보스턴 집을 취재한 현지 언론들은 “방마다 한국 유물로 가득 차 있어 박물관 같았다”고 전했다.

1988년 헨더슨이 사망하자 부인인 마이어 여사는 가야 토기에서 조선 후기 회화에 이르는 한국 문화재를 부군의 모교인 하버드대학 아서세클러 박물관에 기증했다. 하버드는 이를 계기로 ‘천하제일(First under Haven) 핸더슨의 한국도자기 컬렉션’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안평대군의 ‘지장경금니(金泥)사경’

기증된 150점의 문화재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안평대군의 ‘지장경 금니(金泥)사경’이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願經)〉을 푸른색 감지 위에 금으로 써내려간 작품의 상단에는 안평대군 친필임을 뜻하는 ‘안평대군진적(安平大君眞蹟)’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특히, 조선 초기 명필을 대표하는 안평대군의 글씨는 국보 제 238호 ‘소원화개첩’이 유일했으나 도난당해 국내에는 남아있는 작품이 한 점도 없다.

혜문 스님은 “2007년 마이아 여사가 세상을 떠나자 후손이 없던 부부의 유물은 경매로 뿔뿔이 흩어 졌다. 헨더슨 컬렉션의 국내 전시를 계기로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② 블랙스완

죽음을 부른 ‘완벽’에 대한 욕망

2011년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탈리 포트만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블랙 스완’(Black Swan)이 연일 화제다. 개봉 1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 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I was perfect”
(나는 완벽했어요)

여주인공이 목숨과 맞바꾼 공연을 마치고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다. 현대인들의 성공에 대한 강박증을 예술가의 삶을 통해 잘 표현했다. 그녀의 열연에 영화 속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니나’의 하얀 백조 의상은 핏빛으로 물들어간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발레리나로는 적지 않은 25살의 니나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뉴욕시립 발레 단원으로 살고 있는 착한 딸이다. 그녀의 삶에는 친한 친구도 남자친구도 없고 오직 발레만 있다. 성실한 연습벌레로 테크닉도 뛰어난 그녀지만 여태 주인공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다. 그런 그녀에게 ‘백조의 호수’ 주인공의 기회가 찾아온다.



백조의 호수 주인공은 1인 2역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백조와 동시에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흑조를 연기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주인공 자리를 호시탐탐 탐내는 관능적인 경쟁자 ‘릴리’가 등장한다. 니나는 주인공 역을 빼앗길까봐 전전 긍긍하면서 완벽한 흑조에 연기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다. 뒤늦게 찾아온 큰 기회를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시키겠다는 니나의 욕망은 열정을 넘어서 고통과 광기로 뒤엉킨다.

니나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젊었을 때 발레리나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엄마가 물려준 숙제인 동시에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는 욕망의 발로다.

정신분석 전문의 서울대 김혜남 교수는 “현대인들은 완벽에 대한 추구가 지나쳐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성공에 더욱 집착한다. 그러나 그 집착은 반드시 상실감과 결핍을 가져오며 결국 삶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삼독(탐 · 진 · 치)의 탐(貪), 사성제(고 · 집 · 멸 · 도)의 집(集)으로 설명한다. 탐(貪)은 탐욕을, 집(集)은 환희를 구하려는 헛된 집착으로, 탐과 집 모두 고통의 원인이다.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는 욕망을 둘로 나누어 설명했다. 한교수는 “바람직한 원망은 ‘원(願)’으로 표현하고 탐진에 의한 욕망은 아집과 아상에 의한 것으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무명에 가리워져 자신의 보물(부처림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밖에서 보물을 구하고 있다. 타인이 만들어낸 ‘완벽’이라는 허상을 쫓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발레리나 니나는 무명을 걷어 내지 못하고 ‘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모습이다. 내안의 가득한 보배를 바로 알아차림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물과 새와 나무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네

동산사 ①

의풍시에서 백차(白茶)를 한 통 선물 받고 동산사(洞山寺)로 가는 중이다. 동산사 앞에 조동조정(曹洞祖庭)이란 말이 관용구처럼 붙는 것을 보면 조동종(曹洞宗)의 발상지임을 알 수 있다. 동산사가 있는 동안향 동산촌이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도로 사정은 아직도 팍팍한 것 같다. 순례 일행은 예정보다 시간이 걸려 동안촌에 도착하여 조감도를 바라본다. 동산사 역시 의풍시의 자존심인 듯 큰 불사를 할 모양이다.

동산, 개울물에 비친 그림자에 홀연히 깨닫다

주차장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는 산길이 꼭 우리 산중의 절 같다. 계곡도 크지 않고 소박하다. 개울물 소리가 돌돌 들린다. 조금 더 오르니 누각 형태의 봉거교(逢渠橋)가 나타난다. 거(渠)는 동산 선사의 그림자다.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난 다리라는 뜻이다. 동산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때 동산이 남긴 오도송을 과수게(過水偈)라고 부른다.

동산이 일명 봉거게라고 부르는 과수게를 읊조리게 되는 계기가 있다. 운암 선사의 '한 마디'에 걸려 그 말만 생각하며 개울물을 건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 '한 마디'를 타파했던 것이다. 〈동산록〉은 동산이 운암 선사와 나누는 얘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직인사를 하는 동산에게 운암 선사가 말했다.

"어디로 가느냐."

"스님과 이별하긴 합니다만 갈 곳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호남으로 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조만간에 되돌아오게."

"스님의 안주처가 있게 되면 오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헤어지고 나면 만나기 어렵겠지."

"만나지 않기가 어려울 겁니다."

동산이 다시 물었다.

"돌아가신 뒤에 홀연히 어떤 사람이 스님의 참모습을 찾는다면 어떻게 대꾸할까요."

운암 선사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저 이것뿐이라네."

동산이 잠시 머뭇거리자 운암 선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양개화상! 이 깨치는 일은 정말 자세히 살펴야 하네."

순간 동산은 운암 선사의 한마디에 사로잡혀버렸다. 오로지 그 한마디만 생각하며 개울물을 건너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크게 깨달았다. 과수게가 절로 터져 나왔다.

남에게 찾는 일 절대 조심할지니
자기와는 점점 더 아득해질 뿐이네
내 이제 홀로 가나니
가는 곳마다 그분을 뵈오리
그는 지금 바로 나이지만
나는 지금 그가 아니라네
모름지기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如如)에 계합하리라.



동산 선사가 개울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깨친 개울물 위에 누각형태의 다리(봉거교, 逢渠橋)가 세워졌다.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자성(自性)을 본 동산인데, 우리나라 진각 국사의 게송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 선가에 '조동농부 임제장군'이란 말이 있듯 동산의 가풍은 차분하고 소박하다. 내가 좋아하는 진각 국사의 게송이 하나 있는데, 국사는 동산 선사보다 감수성이 더 풍부한 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못가에 홀로 앉았다가
못 아래서 중 하나를 만난다.
묵묵히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나니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걸 나는 안다네.

봉거교에 중국인 남녀 몇 명이서 사진을 찍고 있다. 동산사가 의풍시의 관광지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계곡이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아취가 있는 풍광이다. 산세도 동산의 가풍을 닮은 것 같아 가는 산길이 정겹다.

동산 스님의 휘는 양개(良价)이며 절강성 소흥 출신으로 속성은 유(俞)씨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8세에 동진 출가하여 2년 동안 행자로 지냈다고 한다. 그때 스승이 시키는 대로 〈반야심경〉을 외다가 '무안이비설신'이라는 구절에서 문득 얼굴을 만지며 스승에게 물었다.

"저에게는 눈 귀 코 혀 등이 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왜 없다고 합니까."

이에 스승은 즉시 오설산(五洩山)으로 가 영묵 선사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권유했다. 그리하여 스님은 오설산에서 삭발하고 머문 뒤, 21세에 숭산 비구계단으로 가 구족계를 받고 남방으로 만행을 떠났다.

어느 날 스님(동산)은 남전사에 주석하고 있는 남전 선사를 참방하게 되었는데, 마침 선사의 스승인 마조 대사의 제삿날이었으므로 대중스님들이 재(齋)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남전 선사가 대중에게 묻고 있었다.

"내일이 마조 스님 제삿날인데 스님께서 오시겠느냐 오시지 않겠느냐."

대중이 아무도 나서 말하지 못하자 동산이 대답했다.

"도반이 있다면 오실지 모릅니다."

"이놈이 후학이긴 하지만 가르쳐볼 만하군."

"스님께서는 양민을 눌러 천민을 만들지 마십시오."

훗날 이와 같은 법거량은 마조제일(馬祖祭日)이라는 공안이 된다.

동산이 다음으로 참방한 스님은 위산 선사였다. 동산은 방장실로 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 위산 선사에게 물었다.

"지난번 소문을 들으니 남양 혜충 국사께서는 무정도 설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산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게."

"어떤 스님이 '무엇이 옛 부처의 마음입니까' 하고 묻자 '담벼락의 기와 부스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담벼락과 기와 부스러기는 무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설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대 스스로 듣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듣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서는 안 되네.'

'어떤 사람이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인이 듣지.'

'스님께서는 듣는지요.'

'나는 듣지 못하지.'

'스님께서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정이 설법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듣는다면 모든 성인과 같아져서 그대가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할 거네.'

혜충 국사는 그 스님과 몇 번 얘기를 나눈 뒤 〈화엄경〉의 '세계가 말을 하고 중생이 말을 하고 삼세 일체가 말을 한다'는 부처 말씀을 예로 들었다. '삼세 일체가 말을 한다'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 있는 유정(有情)과 나무와 돌멩이 같은 무정이 다 설법을 한다는 뜻이었다.

동산이 혜충 국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마치고 위산 선사에게 물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위산 선사가 불자(拂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낳아주신 이 입으로는 끝내 그대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 수 없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리

결국 동산은 위산 선사를 하직하고 운암 선사를 찾아가게 된다. 운암은 풍릉 유현의 동굴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동산이 그곳으로 갔던 것이다. 원래 운암은 경을 두루 공부한 학인이었는데, 동굴에 들어 무정의 설법을 들으며 정진하는 도인이 분명했다. 동산이 무정의 설법은 어느 경전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묻자, 운암 선사가 〈아미타경〉의 '물과 새와 나무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한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얘기했다. 순간 동산은 견처(見處)가 열렸고 그 감흥을 게송으로 읊조렸다.

'정말 신통하구나 정말 신통해/ 무정의 설법은 불가사의 하다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기 어렵고/ 눈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니.'

이후 동산은 운암 선사를 더 시봉하다가 하직하고 개울물을 건너는 도중에 무심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대오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그림자가 설법하는 불가사의한 무정의 설법을 귀가 아닌 눈으로 들었던 것이다.

개울가로 난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솥단지 형상의 분지가 나타나고 오른편에 보리선사(菩提禪寺)가 보인다. 동산 선사가 개창할 때는 광복사(廣福寺)였다가 북송 때 보리선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순례 일행에게는 조동조정 동산사가 더 자연스럽다. 산문 입구에 동산 선사가 심었다는 나한송(羅漢松) 한 그루가 눈길을 끈다. 작달막한 나무인데, 동산 선사가 심을 때에 지었다는 게송 한 수가 안내문에 소개되어 있다.

길이가 고작 삼척 남짓/ 향기로운 풀에 덮여 있네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나한송을 볼 수 있을 걸세
(長長三尺餘 郁郁覆芳草 不知何代人 得見此松老)

동산 선사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게송이다. 나한송의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는 뒷사람을 기다리며 심는다는 서원의 게송이 아닐까 싶다. 천년 나한송의 무정설법을 듣기보다는 사진 한 장으로 나한송을 담으려는 내 심사가 문득 허허로워진다.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禪여행 아제여행사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02)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
초조달마대사 육조혜능선사 마조도일선사 백장회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양기방회선사 대혜종고선사 고봉원묘선사 무상선사
순박한 남방불교의 매력 에코투어 라오스 6일
- 4월 21일 / 1,490,000원
- 5월 27일 / 1,490,000원
* 유네스코지정 루앙프라방
* 작은 계림 방비엥 래프팅
* 메콩강의 작은 수도 비엔티엔
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분 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 출 발 : 5월 23일 (2차)
●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 뜰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보탑의 나라 미얀마 - 100m 쉐다곤대탑 - 탁발공양의 스님들 - 2500여개의 불탑의 들녘 - 수상경작을 하고 살아가는 혜호 만달레이-혜호 양곤-바간-
실크로드&볼교로드 7일
- 병령석굴 - 트루판 - 돈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원 / 1 인
구화산 / 보타산 6일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원 - 5월 27일 1,190,000원
부탄을 제일 잘아는 여행사
희말라야 은둔왕국 부탄 / 다질링 9일
차의지방 다질링 - 파로 - 수도 팀푸 - 여름왕궁 푸나카 - 파드마삼바바 수행동굴 탁상
출발 : 4/7, 5/12 (월,목 출발가능)
3,090,000 / 1인
홈페이지 일정참조(http://www.ajetour.co.kr/)
밀라레빠 파드마삼바바 아티샤 성인들의 이야기
great adventure!!
티벳으로 떠나는순례
* 지구상 최고도를 달리는 청장 고원 하늘열차
* 달라이라마 정교일치의 궁 포탈라궁
〈리벳 / 하늘열차〉
▶ 4월 6일 출발 - 1,690,000
▶ 5월 15일 출발 - 1,890,000
▶ 6월 13일 출발 - 1,890,000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 평수 : 45평 육합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173평
- 가액 : 1억 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200평
- 시설비 : 4500만

충북 음성에 공기 좋고 조용한 비구니 스님 사찰입니다. 기도나 공부하실 스님, 건강한 비구니 노스님 등 부담 없이 서로 생활해 나갈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져 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중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주택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운전학원에서 북쪽으로 500M지점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전 세 : 6억3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5평
- 가액 : 12억3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8억 5천만원

해운대 바다근처 토굴

- 대지: 56평
- 법당 및 요사, 방 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비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 총금액 1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 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 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시장 부근
- 평수 2층. 60평 옥상 外 다락방 5평 정도
- 법당 (아미타삼존불,약사여래불,칠성여래불)
- 방3칸, 공양간, 에어컨 3대
- 시설 완벽함,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51)556-1457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상리 878-50 동, 병산리 산 168-2 총 5,830평 법당 1동, 요사채 및 종무소 2동, 극락전1
- 특징: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도로망: 교통편리)
- 입주조건 : 임대 (장기) 또는 매수하실 분
- 임대 또는 매매가액은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주,야 통화가능)
02)403-3333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3천만원

010-3112-35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외동
- 1층 50평
- 아늑한 포교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011-9322-8888

문경세재 아담한 암자(사찰)

최고의 명당 자리 절터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 종교용지 730평방미터
- 1평방미터 가격 150,000원 땅값 암자 명회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건물내역 : 산신각 1동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건물 (증여) 건물값은 받지 않고 드립니다
- 물물교환 가능

011-9535-115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경주시 내남면 시내에서 10분거리, KTX역, 경주 IC근처임
- 대지 1700평,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야외화장실 1동, 주차장 2개소
- 뒤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있고, 남향이라 따뜻함, 보기드문 명당터임
- 가액: 7억 5천

011-505-6505

영 천 토 굴 터

- 위치: 영천시 고경면
- 시내에서 10분이내
- 2차선에서 100M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비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부 처 님 자 리

(참선방 요양원)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변역 잠실역 1시간 內거리
- 평수: 3000평, 4000평, 5000평(선택)
- 특징: 정남향 조용하고 쾌적하며 접근성이 매우양호
- 가액: 평당 22만원(주인직접)

010-2215-36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 법당 (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 벽돌 슬래브 40평 38평(2동) 외 2동 (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 시설, 태양열 발전 등 적지)
- 가액 : 10억(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경찰 종합학교 뒷산)
- 평수 1,800평, 대지 200평
- 나머지는 문전옥답
- 신축사찰, 시설완벽
- 방7, 주방, 목욕탕, 실내
- 국도에서 800M, 아산시에서 포장완료
- 임대도 가능

010-5224-6239

포교원(급)안내 전월세 가능

- 법당, 주지실, 대기실 겸 주방 1, 샤워실 1, 세탁실1, 창고1
- 약 (45坪) 칸막기시설 되어있음, 철학 사주 가능
-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약 600m 주택가 밀집지역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7-15B 01호
- 가액: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6천만원, 월세 1000만원 ~ 45만원

010-8677-1138/010-3391-3538

일본사찰(급)안내

- 위치 : 후쿠시마
- 총평수 약 400평
- 요사채 약 30~40평
- 법당용 약 20평
- 미니 2층
- 안성사찰도 같이 인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10-2003-3944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임야 10,000평, 대지 200평

010-4876-5535

좋은절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000평, 임야 500평
- 별도부지 230평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11-373-0697

사 찰 안 내

- 충남공주시유구읍연종리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고흥군
- 산세 수려하고 물 좋은 천년고찰터
- 고흥 초입 4차선 도로에서 저수지끼고 2km에 있는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도량
- 선방, 기도처, 복지시설 최적지
- 종교용지 200평, 임야 11,500평
- 임법당, 목조토기와 5칸 27평
- 요사채 50평 • 가액: 7억 5천만원

010-6778-1910

사찰(급)안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는 2억, 전세는 1억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공찰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우포늪(정남향)
- 면적: 총대지 320평
- 부대시설: 법당, 조립식 철골 24평(단청필) 석탑,화실,조립식 24평 요사,적벽돌기와 27평,황토방,4평
- 가액 : 1억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500만원(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재역에서 2분거리 (지하철 3호선)
- 3층 건물중 2층 (약 15평)
- 보증금 시설 합 3천만원 (월 45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강남에 이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 현재 포교원 및 철학

010-2090-4490

절(사찰)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지 4300평
- 전통한옥3채, 황토집4채,화장실
- 대나무산책로및 최고의조경
- 교통요충지,주변환경좋음
- 총35억 가격절충및 분할판매가능
- 사찰및 연수원, 전통식품업 최적
- 네이버[연꽃인연]검색후연락바람

055)934-4488
010-3521-69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골
- 포교당, 별장, 사무실, 작업실, 전통찻집 갤러리샵으로 사용가능한 집
- 3층건물
- 가액: 상담 방문 후 절충가능

011-9917-70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 면적 40평
- 아미타, 관음,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큰방3개, 큰 창고 1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55)383-7708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하철 3번 출구 앞 (바로옆 롯데마트에 무료주차 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 및 운영방안 협의가능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8677-7339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 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포 교 원 안 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 3층건물 중 3층
- 평수 67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주차시설 무한가능함
-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9924-0013

전원주택(귀농)터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시장 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상단후불탱화,신중탱화,삼존불외지장단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집기일체
- 주차장완비, 전체평수 약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400-99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대세지,지장,소불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2천만원

010-7550-979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양
- 면적 270평
- 대웅전 23평, 요사채33평 산신각, 창고
- 50년된 사찰임
- 원하는 금액에 양도해 드림

010-9215-4769

포교원겸 사찰안내

스님 법사님 보살님 불자님께

- 위치:전주시내 중심
- 상가주택, 4층 중 뒤로 2층, 독채, 계단 별도 이용
- 대지 122평, 마당있음
- 건평 45평, 큰방 4개, 다용도 방 1
- 거실 주방 깔끔, 욕실 2개, 전체 리모델링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큰 시장 5분거리
-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대가족 환영
- 부처님 법단 원목조각 13자, 집기 대형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 기타 등등,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 전세: 5천 7백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저렴

010-3650-8481

나른한 오후, 왜 이렇게 졸리지?

춘곤증엔 비타민C

이맘때면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난다. 충분히 자도 졸음이 몰려오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진다. 바로 춘곤증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했던가, 점심시간 뒤 쏟아지는 잠을 주체 할 수가 없다. 춘곤증은 계절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춘곤증의 원인

첫째, 비타민 결핍에 의한 증상이다.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체내 대사량도 함께 올라가는데 이때, 비타민의 소모량도 3~5배 많아진다. 특히 비타민C는 세포생성과 호흡기, 소화기 등 모든 신체활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게다가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쉽게 파괴된다.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C의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잠이 오게 되는 것이다.

둘째, 생체리듬의 변화다. 겨울보다 밤이 짧아지면서 낮 시간 야외활동은 증가한다. 게다가 기온이 오르면서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는 빨라지는데 소화기계의 에너지가 뒷받침 해주지 못해 평소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비타민의 王 비타민C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1901~1994)은 비타민C를 스타로 만들어낸 화학자이다. 1970년에 출간한 저서 〈비타민C와 감기〉에서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하면 감기를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비타민C는 암에서부터 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사용된다.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강재승 교수는 "여러가지 비타민이 있지만 그 중에 결핍됐을 때 사망에 이르는 비타민은 유일하게 비타민C 이다"고 말한다.

비타민C는 강력한 황산화작용으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유해산소라고도 불리는 활성산소는 호흡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산화과정에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과정에서 생성돼 생체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를 말한다. 암 · 동맥경화증 · 당뇨병 · 뇌졸중 · 심근경색증 등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의 세포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혈관, 힘줄, 인대, 뼈를 구성하는 요소로 콜라겐 합성과 형성을 돕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플린 합성에 관여해 뇌건강도 도움을 준다.

비타민 보충제 얼마나 먹어야할까?

식약청에서는 1일 권장량을 최소 75mg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장량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세계보건기구(WTO)는 45mg, 캐나다 보건국은 남성 90mg, 여성 75mg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박사는 1일 섭취량을 6000~18000mg으로 권장하며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주장한다.

비타민C,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

비타민C는 6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한 번에 다량의 비타민을 섭취해도 체내 흡수율만 떨어질 뿐이다. 때문에 결국 식사 시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섭취해야한다. 또, 공복에 먹을 경우 위산을 자극해 위액이 분비되면서 복통과 속쓰림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비타민C는 1알에 70mg 이상이면 충분하고 하루 3번, 식후 30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타민 식품으로 섭취하자

과유불급(過猶不及),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 미국은 성인기준으로 하루 비타민C의 최대 허용량을 2000mg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속쓰림, 설사, 소화불량 등이 생길 수 있다.

고용량(1일 1000~3000 mg)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C의 대사로 생성되는 다량의 수산염으로 인하여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으로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하면 비타민C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다. 귤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요로 결석이 생기지는 않는다. 식품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보충제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몇 가지 영양소를 알약에 담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으로 섭취할 때 인체의 흡수율이 훨씬 좋으며 식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은 함께 작용하여 더욱 활성화 된다.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식품은?

정답은 고추다. 고추 중에서도 빨간 고추다. 피망, 파프리카 등 고추과의 야채들은 색깔별로 비타민C 함유량이 다르다. 빨강, 노랑, 초록 순이다. 빨간 고추에는 100g당 242.5mg으로 가장 많은 비타민이 들어있다. 고추의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억제해 항암효과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고추에는 비타민A도 풍부해 호흡기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하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단백질 분해를 도와 다이어트에도 좋다.

과일 중에서는 키위가 1등이다. 오렌지보다 2배 정도의 많은 비타민C를 가지고 있으며 사과보다 섬유질도 많아 특히, 피부를 젊게 유지해 준다. 키위의 루테인(Lutein)성분은 카로틴의 일종으로 비타민 C · E와 함께 작용하여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브로콜리는 키위와 같이 100g당 9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이 역시 면역력 증강시키는 훌륭한 비타민C의 보고이다. 베타카로틴도 풍부해 눈과 심장관련 질환을 예방한다.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C 함유량 (mg/100g)



① 빨간고추-240mg
② 빨간피망, 빨간파프리카 190mg 색깔별 비타민양 : 빨강〉 노랑〉 초록
③ 키위-90mg
④ 딸기-70mg
⑤ 오렌지, 귤-50mg
⑥ 레몬-40mg
⑦ 포도-10mg
⑧ 바나나-9mg
⑨ 사과-6mg
⑩ 배-4mg

건강칼럼

류마티스 관절염



이경제 원장
래오 이경제한의원

우연히 보트여행을 즐기는 1896년의 르노와르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손가락 관절이 부어있어 관절염이 있구나 싶었는데, 1903년 심각하게 손뒤틀림 증세가 급격히 진행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스스로 붓을 쥐지 못해 주변사람들이 손에 붓을 고정시켜주고 팔레트를 무릎 위에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정말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르노와르의 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한의학에서는 백호풍이라고 하는데, 표현하자면 호랑이에게 물린 정도로 아픈 증상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 관절염과 달리 자가면역 질환이다. 자기면역 질환은 내 몸속의 쿠데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내 몸을 지켜줘야 하는 면역세포들이 오히려 내 몸을 향해 공격하는 질병이다. 감기증상처럼 발병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첫째, 아침강직 증상이 나타난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온 관절이 아프다.

둘째, 세 군데 이상의 관절에 통증이 생기며 통증이 잘 생기는 부위는 손목, 손가락, 발목, 발가락, 무릎, 팔꿈치 등이다. 대개 손과 발이 동시에 아프다.

셋째, 관절외 증상이라고 하여 눈이 건조하고 폐렴, 골다공증, 말초신경염 등이 생길 수 있다.

넷째, 날씨에 민감하며 입안이 자주 헐고 손이 시리고 찬물에 닿으면 손색깔이 변한다.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40대 이후 여성들의 절반이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이다. 주로 여성들은 산후풍으로 관절염이 시작된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 하는 것이 관절염 예방의 첫걸음이다.

내가 만일 르노와르의 주치의라면 우선 감기를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쌍화탕을 처방할 것이다. 쌍화탕은 면역력을 증진하는 대표적인 처방이다. 다음에 봉독약침요법을 20회 정도 시행할 것이다.

봉독약침요법은 꿀벌에 전자충격을 줘서 봉독을 뽑아낸 뒤 정제시킨 약액을 경혈에 주입하여 치료하는 약침요법이다. 벌침은 예로부터 신경통, 관절염의 특효로 고대 이집트의 의약서에도 치료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으며, 히포크라테스도 '봉독은 신비한 약'이라고 했다. 필자는 임상에서 1만회 이상의 봉독치료사례가 있다. 그만큼 봉독요법은 관절염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슴뿔로 만든 녹각교, 남생이 배껍질로 만든 구판교, 자라 등껍질로 만든 별갑교, 당나귀 껍질로 만든 아교 등으로 구성된 관절의 특효약인 가미대교탕으로 관절염을 치료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르노와르에게 고온건조한 팜스프링스로 휴양할 것을 권유하겠다. 팜스프링스에는 많은 관절염과 신경통 환자들이 요양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모든 관절염은 습기가 많고 추우면 증상이 심해진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무거워진다.

퇴행성관절염이든 류마티스관절염이든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는 장마철에 증상이 더 악화된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축축한 곳을 피하는 것이 통증예방의 비결이고, 장마철 건강법이다.

호랑이에게 물린 정도로 아픈 류마티스
몸 따뜻하게 하고 축축한 곳은 피해야



벌침은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

불자정보 827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절충)
02)2618-090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동구 좌천동
• 가액: 1천만원
• 보증금 200만원,시설비 800만원
• 조용한 곳
010-8981-5954

토굴 안내
• 위치:경남 밀양시 무안면 덕암리 1018번지
• 대지 약 300평, 건평 44평(2층)
• 법당,산신각,공양간1,스님방1,기타방1
• 경량철골구조로 건축된 2층건물
• 산좋고 물좋은 명당자리,기도도량으로 최적임
• 가액:7500만원
055)351-0148
010-5363-102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 평수 :30평(삼존불, 지장, 신중, 산신탱화, 최상급 인등)
• 유동인구많은 아파트 밀집지역,등산로
• 최고위치,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34-3646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 대성리역 주변
• 평수 140평 • 대웅전 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주지실
• 시설일체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 보증금 5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1-289-2719

사찰 안내
• 위치:충북옥천군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450평 (등기필)
• 기와법당 20평(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창고 15평
• 옥외화장실 및 창고 6평
• 6층석탑(제주석),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암자 안내
• 위치 : 용인시내
• 단독 25평, 주지실, 거실, 공양실 욕실, 약사여래동불, 살림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600만원 월 40만원
011-9568-0168
010-2414-498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
• 도심포교의 최적지
• 공양간1, 방3, 냉온풍기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800만원(오존불 안치)
010-4199-3498

명당고찰터안내
• 250년 사찰터,
• 약수물 있음
• 뒷산넘어 분당산책길 있음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직동
• 부지 1267평(일부토지정리함)
• 가액: 25억
017-361-338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약 60평
• 4층건물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모든시설완벽, 주차장완비
010-2644-0408

속가 안내
경북 영양에 속가가 있으니
건물 20평과 대지 92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자하니
의향이 있으신 분은 문의바람
• 가액: 3800만원 주인직
010-3538-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내 중심가
• 4층 약 41평
• 삼존불, 법당, 친견실, 종무실
• 현재 법회중
• 4층 옥상, 주택 약 30평
•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답사후 절충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10-4840-393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포교원 안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31)677-9950~1

사찰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500평
임야 : 1만 5백평 (임야 입구 30만평 대형저수지)
田 : 약 600평 (국도 옆) (건물 신축 가능)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전시관 내 약 50여점 크리스탈 개금불 외 1,300 희귀 불상 전시 (국내최대). 전시관 외벽 일체 크리스탈 장식 만다라 액자로 장식. 년간 10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 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도 황홀함에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민간방송 총 17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상호절충 (임야, 사찰, 전 불할 매매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 또는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을 입력 하십시오

■ 연락처 : 054) 249-1023. 010-4504-0174
(필히 내왕 하셔서 직접 보십시오)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㉔ 남산의 신라부처님

경주 남산에는 골짜기마다 불상이



부처골짜기에 모셔진 감실. 남산이 불교 성지로 바뀌기 시작한 초반에 생긴 불상이다.

경주 남산은 신라불교의 중심지로 신라인들의 신앙이 녹아있는 곳이다. 경주 남산에는 밤을 새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경주 남산은 높이가 468m, 남북길이 8km, 동서너비가 4km가 되는 산으로 무수한 신라 유적이 남아있다.

남산의 유적들은 신라의 시가지로부터 가까운 북 남산에서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탑곡(塔谷), 불곡(佛谷), 왕정곡 등 남산의 북쪽 기슭에는 신라불교 초기의 모습이 담긴 유적들이 많다. 남산의 불교유적은 650년대 무렵, 신라인들이 꿈꾸던 불국토를 지상에 옮겨놓은 것으로, 신라 토착 종교의 성지였던 곳을 불교적 모습으로 채색한 것이다.

김인문 장군 무사기원 하던 인용사

미륵신앙의 상징 생의사 석미륵 등

민중 불교가 남산을 불교로 물들여

신라인들의 불국토 사상은 매우 흥미롭다. 당시 경주 시내와 제일 가까웠던 반월성 남쪽 왕정골에는 인용사지(仁容寺址)와 석탑이 있다. 절터는 반월성을 배경으로 남산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다. 인용사는 신라 장군이며 외교가였던 김인문이 당나라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인들이 그의 안녕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다. 인용사는 신라가 통일되기 직전에 세운 걸로 추정되며,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남산의 장창곡에는 '생의사 석미륵'이라고 추정되는 장창곡 미륵삼존불이 있다. 생의사 석미륵은 신라 미륵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장창곡 미륵삼존불이 생의사 석미륵이라는 확정적인 단서는 없지만, 앉아 있는 자세가 미륵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의자상(倚子相)이라는 점과 생의사 석미륵에 관한 기록과 일치한다.

해맑게 미소 지으며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이 미륵불은 현재 경주박물관에 소장돼있다. 미륵신앙은 초기 중국불교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북주(北周: 557~581)의 영향을 받은 아이의 얼굴을 한 동형불(童形佛)은 신라인들에게 불교라는 종교를 보다 친근하게 만들게 했다.

장창곡에서 동쪽으로 가면 불곡이 나온다. 말 그대로 부처골짜기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감실(龕室, 벽을 파서 불상을 모시는 장소)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몸은 야트막하게 조각돼 있으며, 손의 모양도 선정인(좌선을 하고 있는 손 모양)으로 옷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부처님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분분하지만, 남산이 불교의 성지로 바뀌기 시작한 초반에 생긴 불상으로 보인다.

남산을 중심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신앙은 신라불교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신앙이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남산을 불교의 색채로 새롭게 물들여 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저기 저 빈 배처럼

저기 저 빈 배처럼 가벼워지고 싶다. 저기 저 빈 배처럼 고요해지고 싶다.
가벼울 때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 질 때 더불어 상생하며 소통한다.
비워 있음은 나눔이며 나눔은 고요함이며 고요할 때 서로의 맥박과 호흡소리를 듣는다.
인근 봄바람은 텅 빈 배에 내려와 머물다 간다.
오늘 나의 일상은 저기 저 빈 배처럼 가벼워지고 고요해졌으면 싶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④ **고려 나옹혜근 선사의 '경세(警世)'**

이번 생에 어긋나면 어려우니

百年只是暫時間 (백년지시잠시간) 백년은 잠깐사이일 뿐이니
莫把光陰當等閑 (막파광음당등한) 시간을 등한시하지 말라.
努力修行成佛易 (노력수행성불이)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되기 쉬우나
今生差過出頭難 (금생차과출두난) 이번 생에 어긋나버리면 벗어나기 어렵나니라.
無常忽到教誰替 (무상홀도교수체) 무상이 문득 이르면 누구에게 대신하게 할 것인가?
有債元來用自還 (유채원래용자환) 빚이 있으면 원래 스스로 돌아올 수밖에.
若要不經閻老案 (약요불경염노안) 만약 염라왕의 심문을 받지 않고자한다면
直須參透祖師關 (직수참투조사관) 곧바로 조사의 관문을 참구하여 뚫어야 하리.

고려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스님은 20세 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출가, 회암사에서 4년간 정진 끝에 깨달았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지공(指空)·평산처림(平山處林) 선사를 참방하고 법을 이었는데 스님의 명성이 알려져 황제로부터 금란가사를 하사받았다. 고려로 돌아온 이후 공민왕의 왕사가 됐으며 원적 후 보제존자(普濟尊者)로 추앙받았다.

위의 시는 세상 사람들을 경책한 것으로서 스님은 후래를 위해 상징성보다는 불법을 직접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했다. 스님은 세상에 대한 빚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고 이 윤회의 사슬을 영원히 끊는 길은 조사선을 터득하는 길이며 그 방법으로 수행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심지어 수행조차도 조금하다가 진전이 없다고 여겨지면 쉽게 돌아서는 경향이 다분하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다는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이 내놓은 1만 시간의 법칙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의 수행방법이 곧 그것이며 그 수행법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집중해보자. 오늘보다 청량한 내일이 기다릴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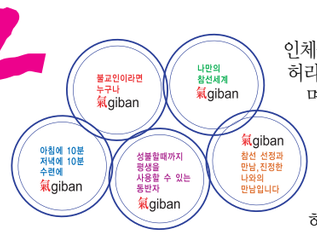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제품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一人一燈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1인1등 연꽃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一人一燈 연꽃밀납양초 배치모습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기방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이렇다 저렇다 시비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법당에 왜 대통령의 등을 달아야 하는지

문) 2010년 초파일 행사가 있는 선원에 갔을 때, 법당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큰 연등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당을 밝히는 큰 등의 꼬리에는 큰스님, 스님들, 사부대중,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이 쓰여진 그 연등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기독교 장로의 이름을 거기에 써 넣다니요. 말할 수 없는 분개마저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파일에는 그 등이 걸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 질문하신 분이 불자라고 한다면 "진짜 불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연등을 켜는 자체가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한생각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불이 사방을 훤히 밝히는 것이지 보이는 등불만 환하게 켰다고 해서 그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을 켠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일신을 위해서 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일체 모든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한 등을 켠다는 한 마음으로서, 그런 마음의 불을 켜는 의미에서 연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을 켠다는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방편의 의식인 것이지요. 그러니 수억겁을 이끌어 오면서 공부시키고, 진화시켜 온 나의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하게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일체(一切)와 직결된 나의 마음에 불을 밝힘으로써 위로는 조상님과 아래로는 일체 자손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났다 해도 남의 부모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잘난 남의 부모보다 찌그러진 내 부모가 그래도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좀 못났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가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내다보세요. 모두가 끼리끼리 놀여 있죠. 금은 금대로 나가게 되고 또는 콩씨는 콩씨대로 나가게 되고 팥씨는 팥씨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차원이



그림 · 최주현

그대로니까 그 차원대로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해서 사는 겁니다. 작든 크든 모두 다 생긴 것도 다르지만 모두가 차원들도 달라서 이 세상에 이거 할 소임을 맡을 사람이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릇대로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보십시오. 종지가 있는가 하면 접시가 있고 그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듯이 사람들의 차원도 그렇고, 도랑물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으면 그걸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구성돼야만이 우리가 썩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원망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두 마음들이 무(無)의 세계 50%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론이나 학술적으로, 또는 모든 거를 아주 전체 잘 배우고 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有)의 세계의 50%에 관한 건입니다. 무의 세계 50%를 모른다면 물질세계의 일을 아무리 잘 배웠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다 이러질 마시고 '나는 진리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저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우는데 무슨 놈의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가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물이 골짜기의 물이든 연못의 물이든, 비의 물이든, 구정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핏물이든 고름물이든, 다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의 물은 다 수용을 합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저 나무 이파리 하나,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거는 다 불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네 종교 내 종교 찾을 것도 없이 지구가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서 같이 이렇게 내 자리, 네 자리 하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이 마음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지구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듯이, 내 몸속에서 내 마음이 훌렁 벗어나야 앉아서도 전 우주의 근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통신할 수 있고, 또 들이고 내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할 수 있고, 둘이 아니게 아픈 것을 건져 줄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한 울에 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고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저 하늘의 해가 일체 만물을 따뜻하게 비춰 주고 키워 줍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로 따뜻한 지혜로써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생각 생각이 부드러운 지혜로써 서로 융합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남의 마음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데 어찌 남의 마음이 따뜻할 때를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악하게 되면 그건 무간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고 밝고 깨끗하게, 정심으로서 지혜롭게 따뜻한 마음으로 둘이 아니게 모든 일체 사람들을 대하고 일체 중생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상대를, 모든 거를 대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스스로 상대도 밝아져서 나와 더불어 밝게 불을 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닌데, 다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근본 자리에다 맡겨 놓으세요. 그러고 증오심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맡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사량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그냥 '내가 사량(思量)으로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또 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당신만이 의합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시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시비를 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 이 세계, 아니 전체 우주를 싸안는 촛불을 들고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시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구라는 이 항아리 속에서 우리가 꼼딱거리면서 그렇게 지혜를 넓히고 지구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조그만 거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뜯고 화합을 가져

☞ 26면으로 계속

바른정법.바른인연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써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 (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行(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써 경전과, 천수경, 이산혜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데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키 위해 구병시식, 천도재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재를 지내보니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대 중 일 동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모두 자기가 해놓은 거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 25면에서 계속

오지 못하는 이러한 국민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 불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계기로 진짜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본에서는 나쁜 생각도 법이 되는지요?

문) 대행 스님 법어집 가운데 〈자유인의 길〉이란 책에 보면 "만법이 그 한자리에 출현하였으므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한생각을 내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체 법의 근본 자리에서 일으킨 생각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쁜 생각을 내면 그것이 그대로 법이 될까 봐서 공부하기가 두렵습니다. 나쁜 생각을 낼 경우에도 그대로 법이 되어 버리는지요? 이 경우 사회에 악이 될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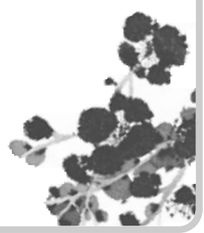
답) 네. 바로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좋은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을 바로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또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도 그 한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바로 거기다가 다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는 본래 다 알거든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욕심 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집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본래. 전부 알고 계시죠? 그걸 좀 대담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 이런 거 잘못되면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일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앞에 강이 있는데 그냥 그게 길이라고 가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냥 가야 옳겠습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서 시키기는 대로만 한다면 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빠져 죽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문리를 틔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던져 보는 겁니다. 던져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빵점을 먹으면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그 시도한 것이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냥.

만약에 조용히 일하다가 갑자기 '너, 거리에 나가서 춤 좀 춰 봐.' 이러면 춤추겠습니까, 또? '응, 내가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 누가 되고 자기한테 누가 되는데, 가정에 누가 되고 모두에게 누가 되는데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다스려야죠, 이제 마음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좋은 거는 하고 언짢은 거는 '아, 이럭하면 안 되잖아, 누(累)가 되는데.' 하고 거기다가 '나를 테스트 해 보려고 이러는 거구나.' 하고 거기다가 되놓고 '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놔야지, 제 자리에다 되놔야지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고 온통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만 또 좇아간다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내일 당장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자기 뿌리를 믿고 편안하게
'굶기는 것도 너고 먹이는 것도 너다' 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다 먹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사람이 잘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아휴, 우리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스님한테 왔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판단은 자신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이럴 때가 많죠. 아, 자기네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는 사는 사람들이 판단을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겠습니까? 주인공에서 나쁜 걸 시키든지 좋은 걸 시키든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시키는 거는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걸 시키는 거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잘 내서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믿는 거고 저래도 믿는 거죠, 자기를 가르치는 채찍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자꾸 뜻을 보는 거니까.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도 됐다가 때에 따라 친구도 됐다가, 때에 따라 부처도 됐다가 법신도 됐다가, 때에 따라선 부모 조상도 됐다가 자기 영혼도 됐다 별놈의 게 다 돼서 돌아가요. 한 아버지가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모두 이렇게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 묘한 법을 여러분이 잘 채택해서 잘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대로, 무심에서 나가는 그 모든 도리가 법이 돼서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다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심부름꾼이 뭘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있습니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 이 도리를 잘 아시면 나쁜 것도 법이고 좋은 것도 법이고, 잘못하는 것도 법이고 잘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 양면을 다 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도(道)입니다. 진리입니다. 본래 진리라는 것은 놓고 가고 있습니다. 놓고 가는데 괜히 여러분이 붙들고 앨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좋은 것도 자기가 한 거고 나쁜 것도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싸잡아 쥐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게 좋은가를 자기 스스로서 지켜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쁘다 좋다를 거머쥔 채 자기는 '아하, 이것을 운전은 내가 하는 거로구나. 나침반이 나로구나.' 하고서 그걸 거머쥐고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자식 마음을 잡아야 할는지요?

문) 자식이라곤 아들 녀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가 통 마음을 못 잡고 밖으로만 돌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답) 아, 여러분이 제각기 자기 주처를 다 가지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인공!'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고, 이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오늘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다녀도 사고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오늘 회사에서 모든 타임을 맞추어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잘되게끔 하는 것도 너밖엔 없어.' 이렇게…. 그리고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자식 몸뚱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넌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래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은 마음으로서 해결이 되는 거지, 모습이나 말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영이다, 즉 말하자면 영의 근본이다.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영혼의 근본이죠. 즉,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주심에 대들보가 올라가고 기둥이 서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그 근본 그 자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마주치면은 영, 영이 아무리 마주쳐도, 영에다 영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수십 개를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영이에요. 그러니깐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그대로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가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도 아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만날 어머니가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니다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님, 제가 여기 다닌 지 3년이 되는데 지금 2년 만에 내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깐 항상 아들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관했더니 몇 달 안 돼서 그 나쁜 친구들을 다 버리고 딴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집엘 들어올 생각을 하니깐, 가지고 나간 돈도 다 없애고 그래서 돈 벌어 가지고 오느라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참 고생도 많이 시켜 드렸고 그러니까 좀 가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서울에서는 김치 하는 김칫독이 있어요. 겨울에 먹고는 인제 나중에 부셔서 또 울궈서 이렇게 엎어 놓죠. 그거를 닦는데 난데없이 들어오더니만 그 어머니를 붙들어서 이렇게 앉히곤, 그거를 자기가 대신 부셔서 다 엎어 놓고 물을 부어 놓고는 주머니를 부시럭부시럭하더니 돈을 꺼내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은 백분지일도 안되지만 저의 마음이 이렇게 어머니를 그립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왔노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 놓고 그날부터 그렇게 착한 아들이 돼서 아주 동네에서도 본받게 되었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그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람사람이 한 철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네 탓 내 탓 하고 미워하고 예뻐하고 이렇게 한다면 요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요. 이거는 사람사람이 모두가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우연도 없고 무슨 팔자운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 놓은 거 자기가 모든 걸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좀 배우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이 내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상대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관(觀)해도 답이 없어요

문) 인터넷을 통하여 스님 법문을 받들며 나름대로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관을 해도 답이 없어요. 주인공과 통신이 되고 싶지만 잘 안되는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마음이 진짜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살듯이 왜 친근한 맛이 있죠? 친근한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싹이 뿌리를 의지하고 진짜로 죽든 살든 뿌리를 믿는다. 죽든 살든, 안되든 되든 뿌리만이 길을 인도하고 지켜 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돼 주고, 또 아프면 의사가 돼 주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그게 통신이 되질 않아요. 벌써 관하면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낼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뿌리를 믿고 편안하게 '굶기는 것도 너고 먹이는 것도 너다.' 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다 먹이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바로 즉시 통신이 돼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뇌로 통신이 되면 바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에 입력이 돼 버려요. 입력이 되면 입력된 대로 과거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력을 하면 앞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서 또 현실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묘한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1.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물 : 태징,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다게작법, 법고춤, 운심게작법, 괘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 세상보기

고유가시대에 살아남기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이미 극에 치달은 피크오일 (Peak-Oil)

지금의 심각한 고유가의 원인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국들의 석유 수요폭등, OECD의 농간, 국제시장의 부흥, 투기자본의 농간, 정부의 대기업위주 정책 등이 지적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석유를 사용하는 화학비료 가격이 폭등해 농업에 영향을 주어 직접적으로 세계 식량위기까지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각종 공산품의 가격이 폭등되며 결국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고유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피크오일문제로 발생한 현상 중에 하나이다. 이미 전 세계 석유생산량은 정점에 이르렀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석유의 생산량이 그 수요량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은 곧 석유문명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 직접적 피해를 원인제공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 약한 동·식물들이 가장 먼저 받는다는 점이다. 중동지역에서 끊임없이 분규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피크오일로 인한 국제적 분쟁은 시작됐다.

잔치는 끝났다. 이제 과보를 받을 차례

돈에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돈이 없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돈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아서 열악한 상황을 그들보다 잘 견딜 수 있다. 석유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석유 사용이 힘들어지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GDP로 세계 12~13위라는 말은 석유사용도 세계 12~13위라는 말이다. 우리가 해고, 경제난, 비정규직문제 등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풍요를 누려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온 편익에는 공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인연과 도리를 알고 있는 불자들은 자신이 누려온 이 풍요로움, 깨끗함, 편리함. 모두 그 과보가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고기값이 오르면 대신 야채를 사서먹으면 되고 물건값이 오르면 안사면 되는 것이다. 고유가의 문제, 오일피크의 문제?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석유를 안 쓰면 되고, 안 쓰는 생활방식으로 살면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는 당신은 아마도 남보다 더욱 많이 석유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이라서 그럴 것이다. 당신은 곧 그 댓가를 지불해야한다.

살아남기 – 천천히 사는 소박한 삶을 즐기는 삶

우선 당신이 쓰는 자동차를 안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 10년 전 당신은 자동차가 없었다고 불행하지 않았다. 잘 살아왔다. 내복 입고 방안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역시 20년 전에 모두가 내복을 입고 살았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전기이다. 당연히 형광등, 전기용품을 끄거나 사용하지 말라. 냉장고, 세탁기도 작은 걸로 사용해야 한다. 크면 채우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구매하는 온갖 물건들은 결국 엄청난 연료를 사용해 만들어지고 사용할 것이다. 구매를 줄여야 한다. 결국에는 작게 사는 것, 적게 소비해 석유문명에 포섭된 것들을 걷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습만 하면 누구나 훌륭한 축구를 할 수 있고, 훌륭한 악기도 연주할 수 있다. 이처럼 생활양식도 연습하면 즐거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급히 서두르면 결국 자동차를 타야하고,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이다. 약간의 불편함도 즐겨보자. 그러면 괴로울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아름다움과 사람,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니 반대로 욕망을 참지 말고 '이동' 시켜보라. 물질적인 욕망에서 정신적인 욕망으로…. 그러면 참을 것도 없는 자연스레 친환경적 삶이 된다.

"내가 죽을 때 까지는 괜찮겠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불행히도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아이들, 친척들이 그 과보를 받아도 괜찮을까? 그러나 당신이 살아있을 때 받을 가능성도 오히려 높다. 나 혼자만 그런다고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바로 그렇게 생각이 모든 불행을 심화시켜왔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당신 하나 '잘' 사는 것이 사회 변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바뀔 걸 기대하지도 말고 그저 당신만 잘살면 된다. 그러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한 만큼 주변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기획실장

봄이다.

확 풀린 날씨에 확연한 봄이 왔음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겨울의 동장군도 얼마 전 동해안 폭설을 끝으로 기운이 다한 것 같고, 이제는 여기저기 제법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내 마음도 싱숭생숭 봄 처녀의 노래로 가득하다.

오랜만에 반가운 전화라도 올라치면 그 시절이 그립듯이 봄날의 상상은 간혹 재미있는 꿈을 꾸게도 한다. 그 땐 그랬지. 그 친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사실 그 친구를 참 좋아했는데… (물론 이성 친구이다!) 하하! 나이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3월의 춘몽은 오늘도 나를 들뜨게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우연하게도 즐거운 인연을 많이 만난다.

몇주 전 참석한 결혼식에서도 우연히 20여 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어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그렇게 보고팠던 후배를, 그것도 평소 호형호제하는 형님과 함께 만나 한참을 반가워했으니 역시 인연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인연의 끈에는 소중하고 정겨운 분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아직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 때 그 시절 알콩달콩했던 시절과의 만남일 것이다.

"내게도 사랑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계사 앞마당 아이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불교와 어린이, 찬불가, 어린이 법회와의 인연이 내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진지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언제였던가. 굳이 오래전의 시간을 들추어내며 "어흠" 폼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답고 순수했던 사람들, 그리고 풍경소리의 발심으로 이르기까지의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의 '마이웨이'를 부르게 하는 큰 힘이 되었으리라.

1980년대와 1990년대. 어린이 법회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시기. 절마다 아이들의 "하하 호호"가 넘쳐나는 시기였다. 물론 지금의 아이들과는 학교생활이나 방과후 학원 등 생활패턴이 많이 달랐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 법회의 열기가 가득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과 법회 선생님, 지도법사 스님. 이제는 제법 시간이 흘렀다지만 간간이 전해지는 소식에 즐거워진다. 그중 가장 많은 소식은 결혼소식과 자녀에 관한 내용이고, 또한 그 다음으로는 "보고 싶다"와 "자리 한번 만들자"라는 아이 러브 법회에 관한 제안이 제일 많았다.

드디어 이런 열망(?)과 그리움에 선생님과 스님들의 조촐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 달 경주에서의 따뜻한 자리가 마음에 불을 댕겼고, 여기저기 알음알음의 인연으로 멋진 자리로 이어진 것이다.

"선생님! 여자선생님 중에 *** 아시죠? 선생님 넘보고 싶다고 꼭 나오시래요."

나 역시 모임을 주선한 선생님의 예쁜 한마디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은 당연했다. 나름 멋지게 차려입고 설레임으로 참석한 자리는 정말 즐거웠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 어린이지도자 모임, 일명 '화요모임' 후에는 '길눈'이라는 모임으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열심히 활동했던 단체로, 정겹고 그리운 친구들이 오랜만에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한 행복한 나들이를 하였다.

이어지는 정담과 웃음소리. "그 땐 그랬지"에서 "지금은…"까지 정말 아이 러브 스쿨이 아닌 아이 러브 법회였다. 그러기를 서너 시간. 맛난 음식과 정겨움에 20여 년의 타임머신이 12번을 왕복하고 나서야 자리는 마무리 돼갔다. 물론 역전의 용사들답게 향후 체계적인 모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찬불동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의 격려와 후원에도 큰 박수로 힘을 실어줬다.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고 악수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발길이 참으로 훈훈해져 온다. 걸음걸음마다 다시 한 번 나의 타임머신이 영화 상영을 하는 듯하다. 옷단추의 맨 처음처럼 기억되어지는 불교와의 첫 만남, 나의 노래, 나의 벗님들과의 인연이 새록새록 봄바람으로 춤을 춘다. 행복의 나라 콧노래로 발걸음 가벼워진다.

입춘대길. 가슴에 떡하니 새기고 씩씩하게 걷는 3월의 오늘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社說

지도부 쇄신 보여라

3월 11일 조계사에서는 '민족문화수호 자성과 쇄신 결사 직할교구 결의대회'가 3000여 사부대중의 참여로 성황리에 회향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직할교구 대회사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한 바람을 일으켜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김영국 운영위원은 4일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07년 대선 당시 승려 380여 명이 이명박 캠프에 상임고문 등으로 참여했다. 당사자들의 반성과 고백이 없다면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은 조계종이 대중을 선동해 민족문화수호운동을 벌이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도 5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5대결사가 잘되려면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이 자신들의 흠부터 고백해야 할 것"이라며 "자승 총무원장부터 MB하수인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국불교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명진 스님과 김영국 운영위원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회피하거나 침묵해서는 안된다. 떳떳이 밝혀야 한다. 리스트가 공개되기 전에 먼저 지도부를 쇄신해야 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국민과의 신뢰회복 이전에 종도 간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

'전기생(全機生) 전기사(全機死)'. 온전히 살려면 온전히 죽어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끝났다. 종회의원들의 종책질의가 돋보인 종회였다. 형식적이던 관행을 탈피하고 종책질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다. 분한신고 미비로 인한 2500여 스님의 승적 박탈건과 신도시 포교방안을 비롯해 총무원 각 부서별로 종책질의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조계종 수익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재무부는 "전국에, 그것도 약수가 나오는 산중에 물장사를 하러 다니냐"는 질책을 받았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특징 중 하나는 수익사업의 확장이다. 조계종 출판사의 주식회사 전환, 재향군인회와 진행 중인 상조사업이나 석수&퓨리스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중인 생수사업이 그 예이다.

조계종은 지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종단 위상을 '푼돈'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이 논란의 단초가 생수 사업이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 등은 종책질의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해 줬다.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종자돈 마련이 어렵다보니 생수처럼 OEM으로 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 이윤을 챙기거나, 상조사업처럼 대리점 영업 형태로 밖에 할 수 없는 점은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아이템 선정을 비롯해 사업 방식 모두 틀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제33대 집행부 출범부터 줄곧 '자생력'을 강조해 왔다.

생수를 몇 병 팔고, 상조회원을 몇 명이나 모아야 조계종이 자생할 수 있을까.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 수요예측부터 다시 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 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7차 : 3/19 ~ 3/20 8차 : 4/2 ~ 4/3
9차 : 4/16 ~ 4/17 10차 : 5/7 ~ 5/8
11차 : 5/14 ~ 5/15 12차 : 6/11 ~ 6/12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 1권 :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1.가정안택의식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2.사무실고사의식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3.자동차고사의식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4.선박고사의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5.삼재살해소의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6.태아영가시식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0-6394-7350
계좌번호 : 농 협 801814-51-031377 예금주 : 김춘길
우체국 612713-02-023012 예금주 : 김춘길

염불당과 열반지 권선문
불초한 소승의 발우를 들고 원력을 세워 땅 한평 시주 권선을 펴는 바입니다.
경치와 기도터 아주 수려한 곳, 조그마한 토굴산방에서 혼자서 수행정진 하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기도도량 터이기에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염불당과 열반당을 건립하고져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님 원력으로 심히 동참 하심을 권선문을 펴는 바 입니다.
동참하신 이땅은 불교의 유산으로 영원히 남기고져 하오며 불자 제위님들과 다함께 원력을 모아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성불의길로 다함께 걸어 봅시다.
나무아미타불…
1인 1평 10만원 권선
땅부지(기도처) 3천평
입금하시고 집주소와 명단을 적어 주시면 천일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기도량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 달마가 필요하신 분은 소승의 친필로 그려 기도드린것을 1점씩 보시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002-443-057634 김경희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31-2 연꽃피는절 황봉 합장
033)342-2291. 010-8660-9449

"운동요법"의 대체의학으로 건강을 지키자
제6기 소림무승, 의승, 지도자 교육
- 문화 체육부 법인인가 자격증 수료 -
한국소림무승협회에서는 중국 숭산 소림사와 같이 국내 최초로 무승과 의승 지도자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무승이란? 무승과정을 수행하는 승려(일반인은 법사)
의승이란? 의술을 연마하는 승려(일반인은 법사)
교육내용 3개월 과정
스포츠마사지 경락 카이로프라틱 태극권 기공 운동요법 역근경
대상
스님, 목사님, 종교지도자, 체육지도자, 한의사, 의사, 요양기관 마사지샵 운영 원장, 미용원, 목욕탕종사자원, 일반인, 학생, 남녀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성인병 예방하고, 좌법, 호흡법, 기공체조, 요가,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카이로프래틱 등 습관적인 나쁜자세를 교정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림기공을 하실분 아래 부위별 통증 증상이 있으신 분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는 증세
· 몸 균형이 틀어지고 엉덩이가 쑤시고 척추, 좌골신경통
· 노이로제, 불면증, 마비증세가 있는분
· 몸이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세
·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분의 어깨통증이나 눈이 항상 피곤한 증세
· 어깨나 팔이 아프고 저리는 증세
· 각종 신경질환, 산후요통으로 팔다리가 저리는 증세
· 목이 아프고 어깨가 저리는 증세
· 변비에 시달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
· 머리가 자주 아프고 정신이 희미한 증세
□ 찜질방, 사우나 탈의실 완비
사단법인 한국소림무승협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13-10(4층)
010-5687-5300 도강 합장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영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쯤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우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족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3일째 아침에 숙변이 신형상에 관모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잠을잘도 잘자았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서 옻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옻은 제품을 만나기위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심정이 없어 퇴원 후 오주마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심정이 좋았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했지만 별효과가 없었지만 설날때 좀 몸의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실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놀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주마다 가던 병원을 3개월에 1번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혈색이 간수치는 54.2 로 돌아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 로 정상됨.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지로 복가능 했던 바톨우종이 완치 되었으며 명적영이 약물없이도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이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게 아침이 같은 표진대를 옻게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마시게 시작하였습니다.
기관지 염병으로 4번째.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간 상태로 엉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을 마시면서 몸이 서서히 엉어 돌고 서서 아픈 곳이 점점 좋아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잠을잘도 잘자았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서 옻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옻은 제품을 만나기위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